

丙午洪州義兵斗

洪京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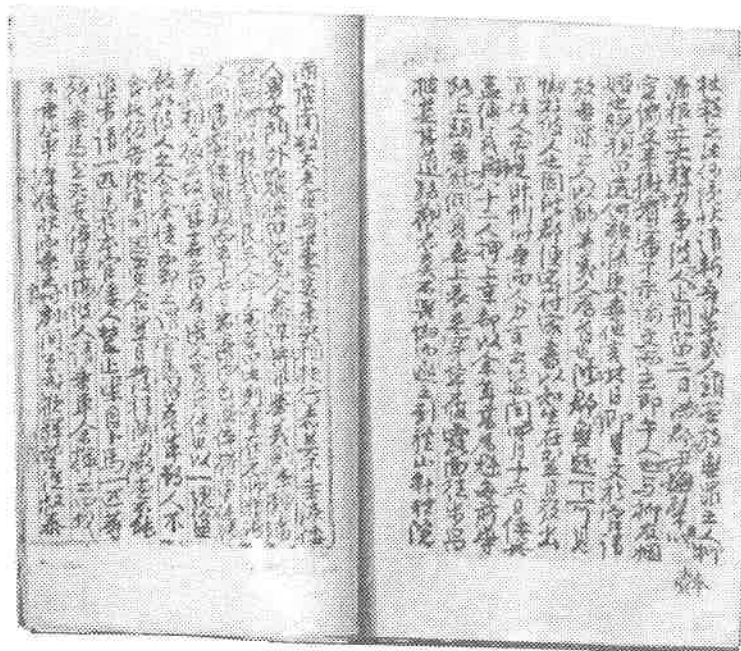
杖殺之徒仍使快活新卒輩或人頭至放舉而主人柳
滿根亦去其力爭使人止刑留二日洪京尹柳某
宣備安未衛有番不示而文而去即午人也與柳某
姻也脫刑而逃何難孫更重他吏故日柳某文於官情
致無罪之人以節著其名者也洪京某廷下可見
物於彼人也因防郡便密付家書以知生存在望月發去
百信人云是時刑時身而人力言之故間四月十六日倭兵
盡傳其兵十二人押上京新以金年為魁金前等
路上頭無冠同身上衣是穿穿故露而往步馬
披其甚道結觀者莫不異而過之到桂山縣時院

兩座南放天光也馬車要來相投行者甚不主倭倭
人男女門外腹視曰此老人希得海而著其則李柳滿
然而何以殺我高氏三人乎金某四此則是在元帥非
人而高知也倭頭而至十七日第過馬也倭倭樣更倭
義兵初人後云故倭主者之向身倭人也及世倭也以一觀
故如倭人之食金倭郭之用官馬而老倭初人不
合此倭告倭官司因實食置日據得財力必老不能
追步請一匹馬於本官倭人禁止果自一馬一匹等
待乘馬至天女倭軍捕倭人請者軍余揮一匹馬
不意此軍倭扶而乘之則同至成散解軍倭板森

大川文化院

丙午洪州義兵斗

洪京日記



大川文化院

= 목 차 =

□ 발간사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1
□ 축 사 (보령시장 이시우).....	3
□ 축간사 (보령시의회 의장 임대식).....	5
I. 을사조약과 병오흥주의병.....	7
II. 흥경일기 해제.....	18
III. 윤석봉 선생의 생애.....	27
IV. 흥경일기 번역문.....	30
V. 흥경일기 원문.....	88
□ 부 록(윤석봉 선생의 을사조약 반대 상소문).....	129



발 간 사

大川文化院 院長 尹炳培

地域의 歷史와 文化는 한 時代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며 또한 地域文化는 그 地域社會의 母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地域의 自然的, 歷史的, 社會的 特性을 바탕으로 住民들 스스로가 生活環境과 生活樣式을 오랜 歲月동안 共同体 生活를 營爲하는데서 이루어진 生活樣式을 意味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祖上의 智慧와 文化意志를 받들어 傳承시킬 義務를 지니게 하고 未來의 後孫들에게 좀 더 높은 理想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歷史와 文化遺産과 先人들의 業을 담은 鄉土誌야말로 우리 것을 바로 찾고 알 수 있게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洪京日記는 保寧市 熊川邑 大川里에 살면서 1906年 洪州義兵에 가담하였던 三希堂 윤석봉 先生이 義兵 참여 과정을 직접 쓴 日記를 바탕으로 엮어진 洪京日記를 만나게 되어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특히 우리 保寧은 3.1 獨立萬歲運動 당시 珠山面 주림산을 中心으로 우리의 先烈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외쳤으며 독립쟁취를

위한 義兵活動의 本居地로 자랑스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此際에 우리 地域의 義兵史를 記錄한 洪京日記가 발굴되어
우리 先烈들의 희생과 獻身을 증명해 주고 있어 당시의 치욕의
歷史를 알게 되어 매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洪京日記 發刊을 契機로 先烈들의 빛나는 精神을 계승
하고 본받아 당시의 의병사를 研究하는 所重한 資料로 活用 하였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冊子를 發刊토록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保寧市 李時雨
市場님과 보령시의회 任大植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本誌를 發刊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애쓰
신 黃義千 先生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도 感謝를 드립니다.

2004. 12.



홍경일기 발굴 번역사업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보령시장 이 시 우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우리 보령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이 넉넉한 축복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만세지보령'이라 불려져 왔습니다.

또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관광 휴양도시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령을 건설하기 위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에는 끊임없는 외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보령은 3.1만세운동 당시 주산면 주립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선열들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으며, 독립쟁취를 위한 의병활동이 활발하던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차제에 우리 지역의 의병사를 기록한 삼희당 윤석봉 선생의 홍경일기가 발굴되어 우리 민족의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봉 선생의 의병 가담 체험록인 홍경일기를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급하는 것은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후세에 전하고 향토 사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당시의 의병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우리 민족의 국권 회복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키고자 희생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렸던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제86주년을 맞는 뜻깊은 을유년의 봄에 흥경일기 발굴 번역 사업 책자 발간을 축하드리며, 책자 발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 12.



축 간 사

보령시의회 의장 임 대 식

우리 지역의 의병사를 기록한 삼희당 윤석봉 선생의 홍경일기를 발굴, 번역하여 향토사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홍경일기」 발간을 해 주신 윤병배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경일기」는 우리지역 웅천읍 대천리에 살면서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하였던 삼희당 윤석봉 선생이 자신의 의병 참여 과정을 직접 쓴 일기로 표제는 홍경일기라 하였고, 의병가담에서부터 체포되어 끌려가서 문초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2개월간의 기록으로 석방되어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기록한 것으로, 가로 18cm, 세로 28cm의 한지에 해서와 반 초서체로 38쪽 분량이며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그동안 후손에의해 보존되어 오다가 이번에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이며, 윤석봉(1842~1910) 선생은 당시 화서파와 종장인 김평복과 유증교의 제자로 1890년 경기도 양주에서 웅천에 낙향하여 집성당을 세우고 지역 선비들과 함께 화서파의 의리를 강론하면서 위정척사의 정신으로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학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권 회복을 위해 앞장섰던 선생의 항일투쟁사를 기록

으로 남기어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크나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망각하거나 소멸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홍경일기」가 삼희당 윤석봉 선생의
애국 충정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홍주의병사 연구에 또 하나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본지 발간에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
하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I. 을사조약(乙巳條約)과 병오홍주의병 (丙午洪州義兵)

을사조약이란 1905년(乙巳年)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일명 2차한일협약,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을사보호조약 등으로 불리는 조약이다. 청나라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진출을 꾀하여 오던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에 대한 침략 발판을 굳히고, 마침내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한국 정복의 야욕을 한층 굳게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을사조약으로 이는 한일합방의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 한국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미국의 포츠머드에서 러시아와 강화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앞서 일본은 영국과 맺은 동맹인 영일동맹에 수정을 가하여 영국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자유행동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러시아와의 포츠머드 조약을 통하여 일본이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우월한 지위와 권익을 얻게되자 침략의 첫 사업으로 먼저 외교권 박탈을 꾀하였다.

이리하여 1905년 10월 주한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 등은 보호조약 체결을 모의하고 그 해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오(伊藤博文)를 황제 위문의 특파대사라는 구실로 한국에 파견, 한일협약 안을 한국에 제출토록 하였다. 11월 10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오는 다음날 황제를 배알(拜謁)하고 일본 국왕의 친서를 봉정(奉呈)하고, 15일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 안을 보였는데, 그것이 매우 중대한 내용이어서 조정에서는 반대가 매우 심하였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 각료를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므로 그 길로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이날 궁성 주위 및 시내의 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하고 다른 부대는 쉴 사이 없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궁중에도 거리낌 없이 드나들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날 이토오는 일본의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여 강제로 황제로 하여금 정부 대신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궁중의 어전회의는 고종황제가 병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 채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 공사는 이토오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오는 즉시 각료 한사람 한사람을 붙잡고 협약에 대한 찬부를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晔)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閔泳綺)

가 반대하였을 따름이고 다른 대신들은 이토오의 강압에 못
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를 찬성하였다. 격분한 한규
설은 황제에게 달려가 이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도록 아뢰려
다 중도에서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오는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
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위협적으로 조인을
받았다. 당시 내각의 인물은 참정대신 한규설 내부대신 이지
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법무대신 이하영 학부
대신 이완용 탁지부대신 민영기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궁내부
대신 이재극 등이었는데, 그중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5명은 조약 체결에 찬성한 자로서 이를 을사오적
(乙巳五賊)이라 한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의
접수,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 등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교섭은 끊어지고 통감보호정치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 사실이 장지연(張志淵)에 의하여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으로 황성신문에 보도되자 전
국민은 의분에 불타고 조약 반대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났다.
시종무관장 민영환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 법무주사 송병
찬 전참정 홍만식 주영공사 이한웅 참찬 이상상 학부주사 이
상철 병정 전봉학 윤두병 송병선 등의 중신과 지사들이 자결

로서 항거하고,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등은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과 조약의 폐기를 황제에게 요구하는 상소운동을 벌였고, 나철 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5적의 집을 불사르고 일진회를 습격하는 등 매국노를 처단하고자 하였다. 또 장지연 같은 이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언론을 펴 일제를 규탄하고 민족적 항쟁을 호소하였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利害共通)의 주의(主義)를 견고히 하고자 아래의 조관(條款)을 약정(約定)함

1. 일본정부는 동경에 있는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統理) 지휘하겠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신민(臣民)과 이해(利害)를 보호할 것이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일에 마땅히 임하고,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는 일본정부의 중개에 연유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황제폐하 궐하(闕

下)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서 종래 재한(在韓)일본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條款)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만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4.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모두 그 효력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보증한다.

각 본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함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박제순 인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林 權助 인

이러한 을사조약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자결, 암살단 조직, 상소운동, 언론운동 등 여러 가지 저항운동이 일어났으며, 아울러 전국의 유생들은 의병운동을 전개하여 항거하였다. 충

청도 홍주의 민중식 의병, 전라도 순창의 최익현 의병, 경상도 영해의 신돌석 의병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홍경일기와 관련된 것은 민중식의 홍주의병이다.

1906년 1월 26일 민중식을 비롯한 지사(志士)들은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함락시키기로 하고 군사를 모아 청양군 광시면 광시장터에 모였다. 이때 의병 수는 3천명이나 되었다 한다. 1월 28일에 부서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대장단(大將壇)에 천제(天祭)를 올렸다.

종사관 : 홍순대(洪淳大)

중군사마 : 박창로(朴昌魯)

행군사마 : 안병찬(安炳瓚)

유희장 : 유준근(柳濬根)

운량관 : 성재한(成載翰)

의진이 갖추어지자 민중식은 곧바로 광시를 출발하여 홍주성 동문(현 조양문)밖 하우고개에에 진을 치고 영을 내렸다.

「홍주성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 수가 6명이라 한다. 만일 그들을 잡아 머리 하나를 가져오면 상금 1천냥을 주겠다」는 방을 붙이도록 하였다. 칼을 가진 사람들이 성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성안에서는 포를 쏘아 맞섰다. 이 소식이 대장소에 전해지자 사태가 위급하니 대장소를 옮기자고 권하는 사람들

이 있으나 민종식은 홍주 주재 정부군이 어찌하여 대포를 쏘는가 즉시 홍주성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리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하면서 성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3천여 의병들은 거의 흩어졌다. 성문에 이르자 홍주군수 이교석(李敎奭)이 말하기를 대장 1명과 종사관 2명만 들어오라고 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 홍주군수는 3일 후면 성을 잃게 될 것이니 퇴군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서 진을 쳤고, 다음날 부위(副尉) 이세영(李世永)이 도착하였다.

의진은 회의를 가진 뒤 다시 광시 장터로 집결하여 군제(軍制)를 바로잡고 훈련을 시켜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의진이 공주로 향하여 진군하여 부대가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 묵방에 이르렀을 때 척후병이 급보를 전달했다. 즉 공주 병력과 경병(京兵) 2백여 명이 청양에 도착하여 휴식중이라는 것이다. 민종식은 진로를 바꾸어 청양군 화성면 화성장터로 가서 진을 치고 하루 밤을 지냈다. 그 날 공주 병력이 묵방에 도착하여 의진이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탐문하여 화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의병이 진을 친 부근에 잠복하였다가 밤을 틈타 총격전을 벌였다. 놀란 의병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서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간 벽지로

몸을 감추었다. 이때 안병찬과 박창로 등 40여명이 체포되어 공주 관찰부로 압송되었다가 4월 12일에 풀려났다.

민중식 의병진의 이 화성의 싸움에 대한 일본측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3월 16일(양력) 민중식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청양 북쪽 2리 지점인 묵방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날 오후 6시 경 경찰과 헌병들이 묵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민중식 등은 이미 그 곳을 떠나 화성면을 거쳐 합천으로 사라졌다. 즉시 이들을 추격하여 그 날 밤 10시 화성면에 도착하여 적정을 살폈다. 그리고 그들이 합천에서 유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대는 이를 습격하여 전원을 사로잡으려 하였다. 다음날 17일 오전 5시에 합천의 숙소를 습격하여 모두 칼을 뽑아들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적(의병)들은 당황하여 화승총으로 다소 저항했으나 23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민중식 이하 몇명은 위기를 모면하여 뒤편의 산 속으로 달아났다. 이들을 백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했다.

1906년 3월 민중식의 처남으로 부여군 구룡면 죽절리에 살고 있던 이용규(李容珪)는 화성에서 흩어졌던 동지들과 전주 인천에서 모여 진안 용담 장수 무주 등의 고을을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집하여 여산에서 집결하였다. 여기서 서천으로 들

어와, 남포 오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식량을 모아 홍산에서 기병(起兵)할 준비를 하였다.

이들과 합세하여 마침내 민종식은 1906년 4월 19일 홍산(현 부여군 내산면 지터리)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의진은 홍산을 함락한 뒤 서천 구병동(九兵洞)으로 행군하여 하루를 자고, 이튿날 비를 무릅쓰고 문장동(文章洞)으로 가서 또 하루를 묵은 뒤 서천읍에 도착했다. 여기서 몇 일을 머무르며 양총(洋銃)을 빼앗고 의병의 요구를 듣지 않는 서천군수 이종석(李鐘錫)을 체포했다가 놓아주었다. 이종석은 몰래 일본 군에 내통하여 도적이 침입했다고 보고함으로서 많은 적병이 모여들게 하였다. 다음날 비인을 함락하고 남포성에 들어가 쫓다. 이때 의병 수는 2천여 명으로 늘었다. 남포에 진을 치고 머물던 민종식은 유준근을 초청하였다. 마침 병중에 있던 유준근이 기꺼이 나와서 종군하였다. 남포에 머무는 동안 군주재소 병정과 공주 병력이 합세하여 공격하므로 응전하여 첫 승리를 거두었다. 5일 동안의 싸움 끝에 남포병사 31명이 의병진에 귀순하였고 공주 병력은 상관의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귀순을 거부하고 후퇴하였다. 병사들에게는 소를 잡아 배불리 먹인 후 주산 간치 장터에 주둔하던 유회병(儒會兵) 33명도 영입하여 결성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지내고 광천을

거처 홍주를 향하여 나아갔다.

1906년 4월 26일(양력5.19) 홍주에 진격하여 성중(城中)을 향하여 포화를 퍼부으니 남문 성벽에 의지하여 저항을 시도하던 적군은 우세한 의병진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류 일본인들과 함께 북문으로 탈출하여 예산군 덕산쪽으로 달아났다. 드디어 홍주성이 의병들에게 함락되었다. 4월 26일 성을 함락하려 하였으나 성문이 굳게 잠겨있어 성곽을 살펴보던 의병 중 신문천(申文天)과 천학순(千學順)이 성곽의 하수구를 이용하여 성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음으로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의병들은 입성 즉시 성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성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성을 점령한 의병진은 군대를 6대(隊)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대포를 4면에 배치하고 3일 동안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렇게 3일 동안 연거푸 이긴 뒤 군사들을 잘 먹이고 상을 주고 위로한 다음날, 또 싸움이 있어서 그 날 밤에야 겨우 쉬게 되었다.

성이 함락되자 일본군은 공주와 서울에서 병력을 지원 받아 성의 주위를 세 겹으로 에워싸고 마구 포격을 가해왔다. 빗발치듯하는 적의 탄환이 성안에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적측의 잘 훈련된 병사들과 현대화된 무기 그리고 수에 있어서도

의병진과는 비교가 안될 강병(强兵)이었다. 한편 의병진에서도 적병의 증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안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등 전투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산지방에서 곽한일 남규진의 의병부대가 입성하여 가세하였고 소모(召募)된 병사들도 늘어났으며 주민들을 동원하여 성을 보수하기도 하였다.

이 때 천주교도 1명이 의병이 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성안에 들어왔다. 의병진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신원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의병들과 함께 성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리에 일진회(一進會)와 모의하고 폭탄을 동문(東門)에 묻었다. 이날 밤 축시(丑時 : 새벽1~3시 사이)에 갑자기 불빛이 하늘로 솟으며 동문이 무너졌다. 성안에서는 크게 놀라 내통한 사람을 잡아 처형하고 급히 동문으로 달려갔으나 벌써 일진회원과 일본군 300여 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민종식을 비롯한 일부의 의병들은 부득이 적이 없는 곳을 찾아 성을 빠져나갔으나 청양 유생 채광묵(蔡光默) 부자 등은 창의에 나선 사람들이 어찌 도망하여 살길을 찾겠는가 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리고 윤석봉 이상구 신현두 유준근 안항식 등은 체포되어 서울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참고문헌: 홍주의병사적, 국사대사전, 한국사〉

II. 홍경일기 해제

일기의 표제는 홍경일기(洪京日記)라고 하였고,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가로 18cm 세로 28cm의 한지에 해서와 반초서체로 38쪽 분량이며, 윤석봉선생 자신이 민종식의 홍주 의병진에 가담하여 체포·투옥·서울 압송·심문·석방되는 과정의 2개월에 걸쳐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1906년 병오 홍주의병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로는 임한주(林翰周)의 『홍양기사, (洪陽紀事)』¹⁾ 홍순대(洪淳大)의 『해암사록(海菴事錄)』²⁾ 성德基(成德基) 등의 『의사이용규전, (義士李容珪傳)』³⁾ 일본측의 토벌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당시의 신문기사 등이다.

『홍양기사』는 1895년의 홍주 을미의병의 진행 과정을 의병장 金福漢과 李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이어서 1906년의 홍주 병오의병에 관해서는 김복한과 이설의 상소운동, 민종식의 의병조직과 홍주성 점령, 이어서 패배를 당하는 과정, 그리고 탈주한 민종식을 보호해준 이남규 부자가 참혹한 죽

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2집, 1971.

2) 宋容緯 編, 『洪州義兵實錄』, 홍주의병유족회.1986. pp305-313.

3)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2집.1971.

음을 당하고, 유준근 이식 등 홍주 9의사가 대마도로 잡혀가던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암사록』은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켜 서천 남포를 거쳐 홍주성으로 진격하는 과정과, 홍주성 전투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의사이용규전』은 민종식과 처남 매부지간인 이용규가 민종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홍산, 서천, 판교, 비인, 남포를 거쳐 홍주성으로 진격하는 과정과, 홍주성 전투상황, 그리고 이용규가 체포된 후 왜병의 문초에 대답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측의 토벌 기록은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劄軍司令部)의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⁴⁾와 한국내부경찰국(韓國內部警察局)의 『고문경찰소지(顧問警察小誌)』⁵⁾가 있는데, 이것들은 일본이 의병을 토벌하면서 군사작전 상황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당시의 신문자료로는 『대한매일신보』⁶⁾와 『황성신문』⁷⁾에 보도된 내용들로 의병의 모집내용, 서천 남포 보령에서의 의병활동 상황, 홍주성 점령과 패배 상황이 기사형식으로 기

4) 國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2집.

5) 韓國內部警察局, 『顧問警察小誌』, 1910.

6) 1906년 5월-7월 사이의 기사

7) 1906년 5월-6월 사이의 기사 - 19 -

록되어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병오홍주의병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홍경일기』는 1906년 음력 4월 22일부터 윤4월을 거쳐 6월 7일까지(양력 5월15일~7월26일) 약 2개월 사이의 기록으로 윤석봉 선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포된 사람의 입장에서 겪은 체험록 형식이며, 당시 유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항일의병에 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이 제3자가 기록하거나, 사건발생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기록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홍경일기는 의병참여 후 곧바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정확도와 상세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홍주성 함락 직후 민종식 의병장과 다른 의병 참여자들이 몸을 피신하였다가 다시 재기를 노리는 내용 등은 이미 기록으로 알려져 왔으나, 체포된 대부분의 의병참여자들은 그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즉 1910년 韓國內部警察局에서 펴낸 『顧問警察小誌』에서는

양력 5월 31일 이래 각 대(各隊)에서 수용한 포로 152명은 홍주 감옥에서 헌병과 협력 취조를 마친 후 74명을 풀어주고, 참모장이하 84명은 헌병대의 손에 의해 양력 6월 7일 서울로 보냈다.

『洪陽紀事』에서는

이번에 죽은 자가 백 여명이요, 잡혀간 자가 83명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경성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다. 음력 6월에 군사령부로부터 70여 명을 석방하였는데 윤석봉은 그 수효 중에 끼었다. 그리고 남규진 유준근 이식 신현두 이상구 문석환 신보균 최상집 안항식 등 9명을 일본 대마도에 감금하되 각각 죄의 경중을 따져 연한을 정하고 유독 남규진 유준근 이식 신현두에게만 무기의 징역을 가했다.

따라서 홍경일기는 체포된 의병참여자들이 홍주성 함락 직후부터 최종 처벌까지 처리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재구성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즉 기존의 간단한 자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1906년 4월 9일에서 6월7일까지의 체포된

의병들의 체포, 홍주에서의 심문내용, 서울 압송과정, 서울에서의 심문내용, 체포의병들의 감옥생활 모습에 대하여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기록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윤석봉의 참여 사실뿐 아니라, 체포자 중에서 윤석봉을 참모장으로 왜병이 인식하고 있음을 일기는 최초로 알려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모의하기로 하고 있던 중에, 전 참판 민종식이 최익현보다 먼저 충남 부여군 지티에서 거병하여 서천을 거쳐 윤석봉 집 앞인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지나가다가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1906년 음력 4월 22일 윤석봉은 나가서 민종식을 만나보고 그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그의 계획을 청하여 들었다. 그러나 의병진 참여 요청에 대하여는 집안 사정을 들어 고사하였다.

며칠 후 민종식 의병진은 홍주성을 함락하였는데 민종식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제자 이교현과 조카를 대동하고 홍주성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홍주성 주변에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회를 보아 홍주성에 들어간 윤석봉은

의병진의 조직과 군사제도를 관찰한 후 대장 처소에 가서 민종식을 만났다. 민종식에게 바깥의 상황을 보니 왜병이 포위하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물었으나 민종식은 자만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오판하여 왜병이 아니라 일진회의 무리일 뿐이라고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심히 불만스러워 더 이상 민종식과 대화하지 않고 물러 나와 군사장(軍師長)인 보령 천북 출신의 학자 김상덕(金商德)과 보령 청라 출신의 학자 유호근(柳浩根)과 함께 장차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옛 고사(古事)에 따라 모두 의리를 지켜 끝까지 떳떳한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왜병의 공격이 시작되어 성안이 어둠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상덕과 유호근은 피신을 하였지만 윤석봉은 불타지 않은 건물에 있다가 새벽에 조카와 함께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유병장(儒兵將)으로 가담하였던 유준근(柳濬根), 참모사(參謀士)로 가담하였던 이식(李弼), 서기(書記)로 가담하였던 문석환(文奭煥) 그리고 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온 남경천(南敬天)이 체포되어 왔는데 모두 자신의 제자이거나 화서학파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나중에 다른 5명과 함께 대마

도에 끌려간 홍주의병 9의사들이었다. 여기서 윤석봉은 나이로나 학문적으로나 좌장(座長)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윤석봉은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이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단식투쟁을 주도하였다.

윤석봉은 홍주감옥에서 진위대(鎭衛隊) 영관(領官) 이기홍(李起弘)의 심문을 받으면서 그가 조선인으로 왜에 협조함을 꾸짖고, 자신이 의병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홍주에서 왜병의 2차 문초에서도 오적을 없애고 대의를 펴보기 위해 의병진에 가담한 것을 지필로 진술하였으며, 왜병이 윤석봉을 참모장으로 알고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사실에 따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문초 현장에서 왜병들이 의병 가담자 색출을 위해 체포된 다른 사람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가혹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윤석봉과 유준근이 힘써 싸워 말려서 형장(刑杖)이 그치기도 하였다.

홍주에서 취조를 받은 후 적극 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드디어 서울 왜병 사령부로 압송되어갔다. 윤석봉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왜병들에게 이번 홍주의병진에 참모장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바람에 압송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

다.

홍주에서 신례원을 거쳐 온양까지는 걸어서가고, 온양에서는 말을 타고 천안까지 가고, 천안에서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3일만에 도착하여 왜병 감옥에 투옥되었다. 윤석봉 등 체포되어온 사람들은 감옥에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병 사령부에서의 문초에 대하여 왜병들이 의병에 참여한 죄인이라고 하는 물음에는 의리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민종식의 행방에 대한 물음에는 행방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의병이 아무리 일어나도 강한 왜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인의(仁義)로서 족히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선과 왜가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양국이 서로 영토와 정치를 존중하고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홍주의병에 왕의 밀지(密旨)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전국에 왕명으로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해서 더욱 강한 의병이 되었지 이렇게 실패하여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 대답을 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얼마나 알고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유준근 이식 문석환만 알 뿐이

라고 대답하였고, 참모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참모장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민종식이 시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의병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적을 없애기 위함이라 대답하였다.

문초 후에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윤석봉의 요청에 의해 사식(私食)이 들어왔고 얼마 후 아들 병원(秉源)이 왔음을 알았으나 왜병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얼마 후에는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도 체포되어왔음을 알게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만나보기를 왜병에게 청하였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후의 문초에서는 최익현과의 의리를 강조하였고, 최익현의 참모장은 할 수 있노라고 대답하였다.

어려운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학문을 아는 왜인 영산(永山)이라는 자가 있어 우국충정의 시를 지어 주니 그가 감동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지식인 대부분이 우국충정으로 일으킨 의병에 대하여 비난을 일삼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결국 윤석봉은 참모장의 혐의가 풀리어 1906년 음력 5월 22일 석방되었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음력 6월 7일에 그 동안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Ⅲ. 윤석봉 선생의 생애

윤석봉 선생은 1842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윤서(雲瑞)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시조는 고려 태사(太師) 신달(莘達)이며, 5세인 관(壠)은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문하시중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19세인 희인(希仁)은 사마양시(司馬兩試)와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22세인 중삼(重三)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갔으며, 사마양시와 문과에 합격하고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29세인 염(滄)은 윤석봉의 고조부로 생원이며, 정조 때는 염의 아들들인 인식(仁植) 의식(義植) 효식(孝植) 3형제가 동시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⁸⁾함으로써 정조임금이 이를 칭찬하고 잔치를 특사(特賜)하여 가문을 현양 하였다.

일찍이 윤석봉의 12대조인 22세 중삼(重三)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간 이래로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기호학파의 학문을 정훈(庭訓)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해왔다. 仁植 義植 孝植 이후에는 과거에는 뜻을

8) 이 점에 대하여는 (주)서울시스템, 『CD사마방목』에서도 확인된다.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해왔다.

윤석봉은 1842년 아버지 윤희오(尹羲五)와 어머니 능성구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와 계모(繼母)손에서 자랐다. 그 후 동당(洞堂) 서응순(徐應淳)과 진암(鎭菴) 박홍수(朴洪壽)문하에 나아가 수학을 하였고, 이어 서 37세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이 가릉(嘉陵)에서 강학(講學)한다는 말을 듣고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이어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문하에 나가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공자 주자 송시열을 정맥으로 하는 화서 학파의 의리를 체득하였으며, 최익현 유인석 등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화서학파는 조선 말기 가장 실천적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여 그 문하에 유인석 최익현과 같은 의병장이 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석봉은 서원철폐, 강화도조약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화양동 등의 유적지를 유람하며 의리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지만 일제의 침략은 더욱 심해져서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갔다. 윤석봉은 이를 개탄하여 1888년 경기도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으로 재종숙 윤건오(尹建五)와 함께 낙향하였다.

거기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2년 뒤 189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치면서 1895년의 홍주의 병장인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僖) 등 호서 지역의 남당학과 학자들과 의리로서 교유하면서 지역에서 화서학파의 의리를 전파하였다.

유인석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보령 여러 유림들과 연명으로 글을 보내어 격려하였으며, 유인석 의병이 만주로 갈 때는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따라가지 못함을 한탄하며 자정(自靖)의 생활을 하였다.

1899년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웅천 대천리에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당(影堂)인 집성당(集成堂)을 세우니 주변의 많은 선비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항일위정척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조약 폐기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1906년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키자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45일간의 구류 후 풀려났다. 1907년에는 지역에서 의병을 선동하고 민심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김복한은 공주감옥으로 끌려갔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가 없어진 것을 분개하여 제자 백관형(白觀亨)⁹⁾을 시켜 집성당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에게 고문(告文)을 올리고, 집안 사람을 시켜 사당에 고문(告文)을 올렸다. 그러나 65세라는 고령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투옥 생활로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얼마 후인 1910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에도 그는 집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유생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였다.

윤석봉은 그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낙향해서도 이 지역 유림사회에서 좌장(座長)역할을 하였으며, 보령지역 화서학과의 종장(宗丈)역할을 하였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웅천 대천리 화락산에 있다가 손자에 의해서 1951년에 고향 경기도 양주에 이장되었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 개발 과정에서 유실되어 없어졌다.

IV. 홍경일기 번역문

〈홍주 감옥과 경성 일본군 사령부 두 곳에서의 일을 합해서 기록한 것임(병오년 1906년)〉

9) 윤석봉의 제자로 홍주의병 파리장서 등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국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됨

을사조약에 대한 비분

을사년 10월 21일에 오적(五賊,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왜노(倭奴)에게 나라를 팔아먹어 이로부터 4천년 성현(聖賢)의 도맥(道脈)이 여기서 끊어졌고, 3천리 조종(祖宗)의 강토가 여기서 상실되었으며, 5백년 종사(宗社)가 여기서 폐허가 되었고, 2천만 인종이 여기서 장차 멸망이 되었다. 온 나라의 신민이 무릇 혈기가 있어 뿔뿔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춘 자라면 누가 분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그 가운데 춘추의 의리¹⁰⁾를 알고 군신(君臣)의 분수를 아는 자라면 더욱 팔을 걷고 이를 갈면서 도맥(道脈)을 보전하고자 하고, 국치(國恥)를 장차 씻고자 할 것이다.

儒賢 宋秉璿¹¹⁾과 大臣 趙秉世¹²⁾와 輔國 閔泳煥¹³⁾과 侍郎 洪

10) 공자가 『春秋』에서 말한 의리를 말함이니, 君父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王統을 위하여 亂賊을 토벌하는 것과 中華를 존중하고 夷狄을 배척하는 民族大義를 말한다.

11) 송병선(宋秉璿, 1836~1905) 본관은 은진이고 우암 송시열의 9대 손이며, 호는 연재(淵齋)이다. 지금의 대전시 동구 성남동에서 태어났다. 학행이 뛰어나 사헌부 대사헌까지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반대와 오적 처벌 상소를 올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살을 하였다.

12) 조병세(趙秉世, 1827~1905) 고종 때 의 대신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음독 자살하였다.

13)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시종무관장으로 있을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조

萬植¹⁴⁾ 제공(諸公)이 의를 이끌고 충절을 지팡이 하여 자살을 하였고, 그 외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어 힘써 간한 자가 자못 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아래로 여대주졸(輿臺走卒)¹⁵⁾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목졸러 죽은 자가 또한 있었으니 역시 동방 예의의 풍속이 오히려 민멸(泯滅)되지 아니한 것을 가히 보겠음으로 하여 천하 후세에 길이 말할 것이 있게 되었다.

여러 현인들의 공이 많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귀결점은 자기의 몸을 정결히 하는데 돌아갈 따름이요, 능히 요분(妖氛)¹⁶⁾은 청소(淸掃)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교만한 섬 오랑캐가 두려워하여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옛날 그대로 포학(暴虐)한 마음을 방자하게 발휘하면서 육량(陸梁)¹⁷⁾을 날뛰고 있게 되었다. 아~ 저 적신(賊臣)이 아직도 머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호강하고 날뛰고 있다.

오직 勉菴 崔先生¹⁸⁾이 원수인 오랑캐가 뜻을 얻은 것을 분

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도로 자살하였다.

14) 홍만식(洪萬植, 1842~1905) 조선말의 지사(志士)로 호는 호운(湖雲)이며 시호는 충정(忠貞)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로 동생 홍영식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아버지 순목은 자살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만류로 자수하여 복역하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통분한 나머지 음독 자살하였다.

15)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니 곧 천한 신분을 말한다.

16) 요사(妖邪)한 기운

17) 육지의 교량(橋梁)을 말함이니 곧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18)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본관은 경주, 경기도 포천 출신, 화서 학파

하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멸망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어 뜻이 같은 사우(士友)들과 약속하고 맹서하였으니 하나는 조중봉(趙重峰)¹⁹⁾의 대의를 본받은 것이고, 하나는 왕손고(王孫賈)²⁰⁾의 고사(古事)를 거행한 것으로서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의리는 후세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疑惑) 할 것이 없고, 귀신에게 질문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다. 어리석은 내가 이 노인과 더불어 살아서는 뜻을 같이하고자 옛 정의(情誼)로서 모획(謀劃)과 방략(方略)의 두서(頭緒)를 간략히 정하였었는데 아직 의병을 발기하지 못하였다.

홍주성으로 진격중인 의병장 민중식을 만나다.

전 참판 민중식이 그 전택(田宅)을 다 매각한 재산으로 많은 선비들을 널리 모집하기를 면옹(勉翁)보다 먼저 하여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남포(藍浦)의 대천(大川)²¹⁾을 지

의 종장(宗杖)으로 강화도조약 반대, 단발령 반대,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순절하였다.

19) 조헌(趙憲, 1544-1592) 조선 선조 때의 학자, 호는 중봉(重峰) 본관은 백천(白川)이다. 율곡 등과 교유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의병 700 여 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20)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왕이 없어져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자 시중(市中)에 들어가 4백 여 인을 모집해서 왕을 시해한 노치(淖齒)를 잡아 죽였다.

21)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말한다. 민중식 의병진은 1906년 4월

나게 되었는데, 두어 시간 행진을 머무른 곳이 내가 사는 이
웃이었다.

내가 장차 나가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閔台²²⁾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위로를 하면서 閔台
에게 큰 계획을 물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오적의
목을 베어 국법(國法)을 바로잡고, 오조약(五條約)을 환수하
여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데 지모(智謀)가 얇고
짧으며 병력(兵力)이 과약(寡弱)하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이롭고 불리한 것은 감히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그 말에 감동하여 드디어 말씀드리기를 대감의 계획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거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에 장차 선생을 모시고 진중
(陣中)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마음
으로는 허락을 하겠으나 몸은 감히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팔
십 노친이 항상 병석에 계시는데 또 봉양할 형제가 없고 천
한 나이가 장차 칠순에 육박하여 마문연(馬文淵)²³⁾의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를 힘이 없으며, 장자방(張子房)²⁴⁾이 유옥(帷

19일 지티(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을 출발하여 홍산을 거쳐 서천 구
병동(九兵洞) 문장동(文章洞)을 거쳐서 서천읍성을 점령하고 판교 비
인을 거쳐 웅천을 지나 남포로 향하는 중이었다.

22) 태(台)는 대감 또는 공(公)의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다.

23) 중국의 역사 인물인 것 같은데 상고할 수 없음.

24) 중국 한나라의 창업공신 장량(張良)의 자(字)이다.

幄)²⁵⁾에서 계책을 운용하였던 것처럼 할 계책이 없으니 비록 따라간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마음은 단연코 다름이 없을 것이고 비록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삼로동공(三老董公)의 계책을 감히 본받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정상(情狀)과 형세(形勢)가 그러하시겠습니다. 지금 홍주로 향하오니 조만간에 한번 오시어 계책을 만들어 우리 군중(軍衆)을 도와 주십시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가르침을 삼가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날이 곧 4월 22일이었다.

홍주성으로 들어가다.

수 일 뒤에 閔台가 홍주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군세(軍勢)가 조금 진기(振起)하였고, 사졸(士卒)이 날로 모여 가히 도모할 형세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閔台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자는 부탁이 있는 까닭으로 윤4월 4일에 족질(族姪) 용원(容源)²⁶⁾과 사인(士人) 이교헌(李敎憲)²⁷⁾ 두 사람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가정(家丁) 5인을 인

25) 유(帷)와 악(幄)이 모두 막(幕)으로서 진영(陣營)에 쓰이는 것이니, 곧 대장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곳

26) 尹容源(1860~1912)은 尹錫鳳의 三從 尹錫禹의 아들이며, 尹錫鳳의 養子 尹秉源의 兄이다.

27) 李敎憲(1862~1935)은 본관이 순義이며 호는 良靑 또는 寬溫齋로 현재의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당시에는 홍산 소속임) 만수산 아래에 살

술하여 보령 역점(驛店)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비를 만났다.

전 보령군수 박홍양(朴鴻陽)이 아들을 보내어 들어오기를 청하였는데, 이 친구는 본래부터 서로 아는 바이고 또 지기(志氣)가 호매(豪邁)²⁸⁾하여 역시 이번 일에 서로 도움이 없지 아니하였다. 들어가 보니 병으로 수개월간 누워 있었는데 증세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비록 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어 용태(容態)를 움직이면서 언론(言論)이 강개(慷慨)²⁹⁾하고 다소의 모략과 계획이 있어 閔台에게 비밀리에 전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십분절중(十分節中)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인 것은 잃지 아니하였다. 비에 막혀 하루를 머물러있으면서 군무(軍務)의 이해(利害)를 간략히 의논하였다.

초 6일에 길을 떠나서 홍주성이 1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왜병이 이미 이르러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주점(酒店)

던 유학자였다, 최익현과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고, 병오홍주의병에 스승 윤석봉을 모시고 참여하였다가 의병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학자이다. 그의 제자들이 부여 서천지역에 많았다. 집성당의 창건유사로서 집성당 창설에 기여하였고, 이후 그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집성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거주지가 비록 외산이었지만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집성당과 이 지역 화서학과 인물들이었다. 卍建元의 아들 卍錫祺 그리고 白觀亨과는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문집으로 그의 제자 吳在燮 등에 의해 1979년에 간행된 『寬濫齋集』이 있다. 묘소는 미산 양각산에 있다.

28) 뛰어나고 장함

29) 의분(義憤)에 북마치는 것

에서 머물면서 방황하는 즈음에 2-3명의 소년이 우리의 행색을 알고 앉아 있는 방으로 급히 들어와 말하기를 소생 등은 서인석(徐仁錫)이온대 선생의 행차를 듣고 급히 왔습니다. 일이 지극히 위태로우니 자못 물러나서 잠시 소생의 집에서 숨어 계시다가 기회를 보아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심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거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다. 즉시 서생(徐生)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새벽에 그 동정을 살피고 홍주성 밖으로 곧바로 향하였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왜병은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장차 물러가고자 하다가 돌이켜 생각하니 비록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옛날 교훈이 있었으나 이것은 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경중(輕重)을 구분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약속을 하였는데 적의 형세가 심히 급하다는 것으로 그 난(亂)을 구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의리에 옳지 아니한 것이므로 시석(矢石)³⁰⁾을 무릅쓰고 성문에 이르러 수문장에게 말하기를 남포의 윤모(尹某)가 왔으니 급히 장대(將臺)에 통고하여 즉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수문장이 우리 행색을 알고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문을 열었으니

30) 화살과 쇠뇌로 발사하는 돌. 전쟁상황

그때의 형세가 급한 것을 가히 알 것이다.

홍주성에 들어가 민종식을 만나다.

군사장(軍師長) 김상덕(金商憲)³¹⁾의 처소로 곧바로 들어갔고, 전 승지(前承旨) 김복한(金福漢)³²⁾은 나의 뒤를 따라 들고 오고자 하다가 문이 닫혀 들어오지 오지 못하고 드디어 화산(華山) 이승지(李承旨) 설(僎)³³⁾의 집으로 물러났다가 본가로 돌아갔다. 이에 김상덕(金商憲) 유호근(柳浩根)³⁴⁾과 더불어

31) 김상덕(金商憲, 1852-1924)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위관(韋觀)이다. 보령 천북에서 태어났고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직각, 대사성을 지냈고 1896년 홍주 관찰사를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자수하여 체포되어 유형 판결을 받고 전북 옥구의 고군산 군도에 유배되었다. 풀려나와서는 천북에서 은거하면서 천일대(天日臺)를 만들고 북향재배 하면서 나라 잃은 억울함을 달랬다. 남당 학파의 학맥을 이었으며 李僎 金福漢 柳浩根 趙龜元 등과 우의가 두터웠다.

32)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충남 홍성군 이호리 출생으로 호는 志山이며 본관은 安東으로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仙源 金尙容의 후손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향에 홍주에 내려와 의병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보령 청라로 은거하였다. 이설과는 내외종간으로 남당 학파의 종장(宗丈)으로 호서 유림의 영수였다.

33) 이설(李僎, 1850-1906) 홍성군 결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호는 복암(復菴)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향 홍주로 돌아와 김복한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김복한과 함께 남당 학파의 영수로 활동하면서 항일운동에 전념한 학자이다.

34) 유호근(柳浩根, 1853-1925) 보령 청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사가(四可)이다. 金福漢 李僎 趙龜元 金商憲 등과

두어 마디 말을 한 뒤에 대장 처소로 나아가 군중사기(軍中事機)를 간략히 묻고 군영을 두루 관찰하니 군중 조직(軍衆組織)이 규율을 잃었고 병사들의 마음이 해체가 되어있었으며 무뢰잡객(無賴雜客)이 안팎으로 사심(私心)으로 경영하면서 시끄럽게 출몰해대니 패망의 조짐이 불일간(不日間)에 있게 되었다.

또 적병들이 성을 공격하면 상황이 심히 위급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위태롭고 급박한 형상을 대략 말하여 주고, 또 방어하고 수호할 계책을 청하였다. 閔台가 말하기를 왜병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니 원하옵건대 어른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병사는 겁을 먹는 것이 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닌데 대감은 어찌 그리 말을 쉽게 하십니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 기병(騎兵)과 보졸(步卒)이 함께 온 것이 수 백인이 넘었는데 어찌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閔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일진회(一進會)³⁵⁾의 무리일 것이고 왜병은 두 사람도 온 자가

학문적 교분이 두터웠고, 남당 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하였다.

- 35) 一進會는 1904년 이용구 등이 조직한 친일 매국 단체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두고 었다. 홍주성이 일본군에 무너질 때도 천도교인으로 위장한 일진회원이 의병이 되겠다고 들어와 동문을 폭파하고, 1906년 11월 민종식이 다시 재기하기 위한 모의 장소를 일본군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일진회원과 일본군이 이 곳을 덮친 적이 있다.

없는데 선생은 어찌 이같이 두려워하십니까 하였다. 내가 이에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의 일도 묻지 않았고 하나의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

김상덕 유효근과 함께 처신을 의논하다.

사차(私次)³⁶로 물러 나와 金商憲 柳浩根 두 친구와 더불어 손을 잡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사(大事)가 실패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요. 나는 閔台와 더불어 본래 죽기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의병진에서 직임(職任)도 없으니 나는 柳友와 더불어 처음부터 같이 죽을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병자년과 정축년의 강도(江都)의 일³⁷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니 그 때 江都에는 종묘의 사당과 대군과 왕자가 있는 곳으로서 선원(仙源)³⁸이하 여러분이 다 임금의

36) 개인이 거처하는 사사로운 곳

37) 병자년(1636) 정축년(1637)의 강도(江都)의 일이란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왕자 비빈(王子妃嬪)들은 강화도에 피신하였는데, 청군이 강화도를 먼저 공격하여 강화도가 함락되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등 강화성을 지키던 많은 책임자들이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자살하였다.

38)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호는 선원(仙源)이다. 청음 김상헌의 형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병자호란 때 우의정으로서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도로 갔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성문 위에서 화약 상자에 앉아서 화약에 불

명령으로 성을 지키었으니 그 의리는 우리들의 아래로부터 의병을 일으킨 것과는 중요한바가 스스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김령(金令)³⁹⁾은 이미 閔台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과 영화(榮華)와 욕됨에 있어서 의리가 홀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병사들이 패배하는 날 싸우다 죽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가 잡히어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하여 죄를 기다리는 것을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소 글 내용의 큰 뜻은 국가의 곡식과 관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번 일에 실패한 것에서 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자신을 칭하는 바는 ‘미사신(未死臣)’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金令이 말하기를 ‘사죄신(死罪臣)’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영형(令兄)이 어찌 이윤(尼尹)의 강도사(江都事)⁴⁰⁾로 자처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金令이

을 질러 자살하였다.

39) 김영감(金令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김상덕을 말함.

40) 尼尹의 江都事란 尼는 尼山을 말하는 것인데 즉 오늘날의 논산 노성이다.尹은 노성에 살던 학자 尹善舉를 말한다. 윤선거는 병자호란 때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강화성이 함락되자 그의 부인은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목매어 자살을 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 나왔다. 이 후 그는 의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항상 사죄신(死罪臣)으로 칭하면서 은거하였다. 윤선거는 송시열과는 친구지간이었고 그의 아들 윤拯(尹拯)이 송시열의 제자였으나 송시열은 윤선거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영원히 절교하였다

말하기를 그렇다면 싸우다 죽는 것은 의리에 어떠합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병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것이요 본래 위로부터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였은 즉 적을 피하여 몸을 벗어났다가 다시 의사거행(義事舉行)을 도모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리가 전진(戰陣)에서 용맹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 형세가 궁박하고 힘이 다하여 죽음을 회피할 수 없으면 적을 꾸짖고 죽는 것이니 이 또한 회양(淮陽)의 순원(巡遠)⁴¹⁾과 금산(錦山)의 중봉(重峰)과 더불어 닮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와 柳友는 의리에 있어서는 두 분 영감(김상덕과 민종식)과는 더불어 차별이 있으나 만약 면하기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면 가히 구차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약속과 맹서를 종이에 서서 가로되 ‘薪膽(薪膽)과 배주(盃酒)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즉시 글을 쓰기를

홍양성 가운데 두 사람의 외로운 신하여/

41) 당나라의 충신 張巡과 許遠을 말하는데,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安祿山을 공격하다가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다.

자네들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仁을 이룰 것인가/
 나 또한 이때에 의리를 같이 한 자이니/
 다만 나라가 있는 것은 알고 몸은 알지 못하누나/
 김영(金令)이 크게 읽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비로
 소 老兄의 학문 실력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김영(金令)의 시에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님 雙翁은 고려 말엽의 신하이신 데/
 삶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중하게 여겨 스스로 仁을 이루
 시었지/
 하물며 지금은 사람과 짐승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었
 으니/
 다만 종용히 이 몸을 죽이는 것이 합당 하도다./
 柳友의 詩에서 말하기를
 외로운 성에 바람과 비는 도망치는 신하를 짝하였구나/
 사람과 귀신이 되는 관두(關頭)에서 각각 仁을 밟았네/
 만 개의 활시위 소리 가운데서 단란하게 머리를 모았으니/
 강상(綱常)이 항상 자기 몸에 관계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閔台는 군진(軍陳)을 통솔하고 군중에 사무가
 많은 까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홍주성이 왜군에 함락되다.

이로 인해 술을 따라 서로 마시는 즈음에 소년 한 사람 최 아무개가 곁에 있다가 총탄에 맞아 피가 흘러 자리에 가득 하였으며, 대포의 탄환이 우박같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한 좌석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실색(失色)하였다.

내가 金柳二友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앉아서 총탄을 맞아 죽는다면 의리가 전혀 없게 되니 사관(舍館)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을 방어할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서문(西門)안 빈집으로 옮기고 나서 드디어 김영(金令)을 대장의 처소로 보내어 시급한 상황을 갖추어 말하였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김영(金令)이 와서 말하기를 閔台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모여 앉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포향(砲響)이 사방에서 일어나 천지가 진동하는데 홀연 대포 한발에 성문이 파쇄(破碎)되고 왜병이 돌입하여 화광(火光)이 충천하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고 성중이 시루물 끓듯 하였다. 대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백성들의 호곡(號哭)하는 소리는 어지러운 개구리울음 소리 같았다. 지척을 통하기가 어려워 閔台의 거류(去留)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김영(金令)의 하인 5-6명이

김령(金令)을 급히 불러 김영(金令)이 지계문을 나가고 柳友가 따라 나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교헌이 말하기를 金柳 두 분이 나가서 피하였는데 이같이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처신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성의 이번 일은 강도(江都)의 옛 일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니 오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의(處義)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李友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깜깜한 밤에 걷기도 어렵고 도로와 산천도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만약 총탄에 맞아 죽는다면 이것은 명색 없는 죽음이니 나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교헌(李敎憲)과 안시중(安時中)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속히 나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용원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호흡(呼吸)사이에 박두하였으니 너는 가히 잠깐 사이라도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하고 함께 빈 집 가운데서 총탄을 피하였다. 그런데 전후좌우에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어지러운 칼로 물건을 찍는 것 같아 차마 듣지 못하였다.

왜병에게 체포되다.

날이 이미 새벽이 되었으므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잡하기를 기다리는데 왜병 두 사람이 내가 앉아있는 집으로 곧바로 들어와서 두루 살펴보고 나갔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왜병이 와서 탐색(探索)을 하고 곧바로 나가자 용원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반드시 생문방(生門方)⁴²⁾일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天命이니 반드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하고 용원으로 하여금 싸우었던 한 뭉치의 보자기 보따리를 내놓게 하니 술이 있었다. 술병을 조금 기울여 마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왜병 한 사람이 또 와서 먼저 용원이를 잡아 끌어내었다.

이때 나는 바야흐로 창문과 벽 사이에 몸을 숨겼기 때문에 왜노(倭奴)가 미처 보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용원이가 즉시 칼로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조카가 나로 말미암아 먼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먼저 죽고 조카가 나중에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어찌 차마 집안 사람들을 보겠는가? 하였다.

바야흐로 몸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왜놈 2명이 또 와서 이 몸을 끌어내어 포승줄로 두 팔을 묶으면서 서

42) 점괘에서 8문(八門)중의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들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곳.

로 돌아보고 기뻐하였다. 격설(歇舌)⁴³⁾의 말을 가히 알 수 없으나 그 뜻이 조선의 양반을 비로소 얻어서 의병의 괴수라고 이르는 것 같았다. 왜놈 두 명이 좌우에서 붙들고 가면서 한번도 때리는 일이 없었으니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길옆을 돌아다보니 넘어진 시체가 많이 있어 참으로 이른바 목과 등이 서로 보이고 간과 뇌가 땅에 깔린 것으로 있어 차마 보지 못하겠다. 나를 객사문(客舍門) 안에 앉혀 놓았는데 용원이가 이곳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으므로 눈짓을 보내어 비밀히 말하기를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살아서 여기에 있으니 아직 기쁘고 다행이다. 죽기 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니 용원이 묵묵히 머리를 끄떡였다.

체포되어 온 다른 의병 참여자들을 격려하다.

보령의 유준근(柳濬根)⁴⁴⁾과 정산의 이식(李弼)⁴⁵⁾과 비인의

43) 알아 들을 수 없는 야만인의 언어. 곧 일본어를 말함.

44) 유준근(柳濬根, 1860~1920) 보령시 대천 내항동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우록(友鹿)인데 대마도 유배시 함께 있던 최익현이 지어준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 유병장(儒兵將)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 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후에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馬島日記』가 있다.

45) 이식(李弼, 1873~1936)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출신으로 본관은 연안이고 호는 화산(華山) 또는 친구당(愼懼堂)이다. 정산에 낙향한 최익현에게 사사를 받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는 참모사(參謀士)로

문석환(文錫煥)⁴⁶⁾ 세 사람이 차례로 포박되어 왔는데 깜짝 놀라 서로 돌아다보면서도 말을 통하지 못하였으니 왜병이 의심을 할까 봐서 혐의한 것이다.

틈을 타서 내가 비밀히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명이니 조금도 동심(動心)하지 말라. 송나라 문승상(文丞相)⁴⁷⁾이 시시(柴市)에서 죽었고, 우리 동방 3학사(三學士)가 연시(燕市)⁴⁸⁾에서 순절하였으니 우리들의 오늘의 일은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다행이 삶을 얻는다면 한(漢)나라의 소무(蘇武)⁴⁹⁾와 송나라의 홍호(洪皓)⁵⁰⁾와 우리 동방의 김청음(金淸陰)⁵¹⁾과姜수은(姜睡隱)⁵²⁾이 스스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으며, 1912년에는 고종의 밀지(密旨)를 임병찬에게 전하여 함께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윤석봉의 사망시에는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46) 문석환(文奭煥, 1869~1925)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幼學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운초(雲樵)이다. 을농 신섭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에 書記로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대마도일기가 있다. 윤석봉 사망시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47) 남송의 충신 文天相을 말함인데, 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가 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正氣의 노래를 지어서 충절을 보이고 죽음.

48) 병자호란 때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洪翼漢 尹集 吳達濟를 말함

49) 漢무제 때 사신으로 匈奴에 갔다가 單于가 가두어 놓고 항복을 하기를 위협하니 굴하지 않고 19년 만에 귀국한 인물

50) 송나라의 충신

51) 김상헌(金尙憲, 1570~1652) 호는 청음(淸陰)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있으니 조금도 뉘우치고 한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다만 우리들의 역량과 지위가 전인(前人)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근심이 되는 것이니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고 말이 없으나 이것은 반드시 나의 말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리라.

하루종일 결박되어 앉아있으니 두 손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몸 전체가 쭈시고 아팠으며 하루의 낮과 하루의 밤을 물과 곡식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혼도불성(昏倒不省)⁵³⁾할 것인데 정신이 상패한 것 같고, 흉중의 기운이 발발(勃勃)⁵⁴⁾하여 기운이 산같이 솟구치니 반드시 이것은 쌓인 분노가 있기 때문이리라.

잡혀있는 수 백 여인의 거주지와 성명을 모두 기록한 뒤에 수 백 명의 왜병이 각각 총검을 빼들고 둘러싸고 전후좌우로 나열하여 물고 가는데 참살(斬殺)하려고 하는 모양 같았다. 몇 시간이 안되어 홍주군 감옥에 모두 수감되었는데 그 날이 곧 윤4월 초9일이다.

병자호란 때 기초 중인 화의 국서를 찢으면서 통곡하였고, 화의가 성립됨에 이르러서는 심양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으나 시종 굽히지 않고 3년을 간혀 있다가 돌아왔다.

52) 강항(姜沆, 1567~1618) 호는 수온(睡隱)이고 본관은 진주이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환하였다 그러나 죄인을 자처하고 은거하였다.

53) 정신이 혼미하여 거꾸러져 人事를 살피지 못함

54) 왕성한 모양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왜병이 저녁밥을 내어주는데 한 덩어리의 소금 밥을 주거늘 내가 유준근과 더불어 맹서하여 약속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밥은 가히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산 사람 남경천(南敬天)⁵⁵⁾이 말하기를 소생도 역시 먹지 않겠다고 하여 세 사람이 밥을 집어던지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식 역시 처음에는 나의 말을 따르더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 밥을 먼저 받거늘 내가 크게 꾸짖으니 이식이 무안해 하였다. 문석환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저들의 밥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생이 보기에 그 의리가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한나라 소무(蘇武)가 19년 동안 오랑캐 땅에 거처하였는데 오랑캐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고, 송나라 홍충선(洪忠宣)⁵⁶⁾이 17년간 금노(金虜)⁵⁷⁾에게 수감되었는데 역시 그들의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김청음(金淸陰)이 7년 간 심양옥(瀋陽獄)⁵⁸⁾에서 구류(拘留)되었는데 우리 곡식

55) 대마도에 유배된 병오 홍주의병 9의사 중의 한 사람

56) 홍호(洪皓)를 말함

57)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말함, 금은 북송을 멸망시킴.

58) 靑太祖 누르하치가 이곳에 도읍하고 후금(淸)을 건국함. 오늘날의

으로 만든 밥을 들여다 먹었다는 것은 또한 듣지 못하였으니
저들의 밥을 먹고 구차하게 사는 것도 의리에 해가 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또 백이 숙제(伯夷叔齊)가 주나라의 곡식
을 먹지 아니한 것을 성인이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혹 살기도
하고 혹 죽기도 하면서 각각 주장하는 바대로 아울러 행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자기의 견해로써
먹고 안 먹는 의논을 정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왜인이 와서 밥을 먹지 않는 까닭을 묻거늘 내가 대답하기
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원수가 되는데 너희는 나에게 줄 의
리가 없고 나는 너에게 받을 의리가 없으니 나는 나의 밥을
사서 먹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세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군
자는 차래지식(嗟來之食)⁵⁹⁾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너의 같은
원수의 밥을 받겠는가 하니 저놈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목하
여 나를 원수로 보는 것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홍주읍에서 같이 수감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노물(老物)⁶⁰⁾
을 민망히 여겨 자기들의 밥을 나누어 서로 권하면서 말하기
를 우리들이 가지고 온 밥은 조금도 혐의할 것이 없으니 감
히 시저(匙箸)⁶¹⁾를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거늘 이에 유준근

만주 선양이다.

59) 무례한 태도로 먹으라고 준 음식

60) 윤석봉 자신이 늙은 자기의 몸을 비하하여 老物이라고 하였다.

61) 숟가락과 젓가락

남경천 두 사람과 더불어 같이 먹으면서 말하기를 𪎐人이 주는 것은 비록 혐의적은 것은 없으나 이것 역시 조석간사(朝夕間事)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이에 매입(買入)하여 먹으면서 실낱 끈 같은 목숨을 겨우 보전하였다.

결에 있는 사람들이 비소(誹笑)를 하면서 말하기를 소중랑(蘇中郎)⁶²⁾과 김청음(金淸陰)의 일이 분명하게 가히 증거 되는 것이 있으니 제공의 먹지 않는 것은 의리에 어떠한 것입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처한 의리는 소중랑과 김청음과 더불어 스스로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소중랑과 김청음은 斥和와 부인(俘人, 포로)에 관한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의병을 일으켜 저놈들을 공격한 사람들이니 그 의리는 부인(俘人)과 더불어 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찌 차마 그 개·돼지의 밥을 먹겠는가 하니 그 사람들이 꺾이어 승복하였다.

영관 이기홍이 심문하다.

옥중에 구류된지 2일되었는데 이날은 윤4월 11일이다. 왜병이 와서 포박해 가지고 홍주아관(洪州亞館)에 이르니 영관

62) 蘇武를 말함

(領官)이 마루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에 좌석을 만들어 나를 대좌(對坐)하도록 하였다.

먼저 거주지와 성명을 묻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실에 쫓아서 자상하게 말하라 하거늘 내가 영관을 살펴보니 하나의 왜췌(倭酋)⁶³⁾이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느 해부터 우리 나라에 와서 있었는데 언어가 이같이 능숙합니까. 귀국에 있었을 때 무슨 관직에 있었습니까 하니 영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 또한 조선 사람인데 형색(形色)이 변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노인이 몰라보시는 것이 혹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영관의 성명은 누구십니까 하니 영관이 말하기를 이기홍(李起弘)⁶⁴⁾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슨 이씨입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국족(國族)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타성(他姓)도 차마 이러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거늘 당신 같은 설파(璿派)⁶⁵⁾로 감히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황명(皇命)을 감히 어기지 못해서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도 받지 못하는 바가 있거늘 또한 이 명령은 본래 황상(皇上)의 뜻이 아니거늘 사람으로서

63) 왜놈의 추장이라는 뜻인데, 왜놈의 책임자를 말함.

64) 관군 순초 보고(官軍巡哨報告.1906.6.22)에 의하면 그는 공주 주재 충청남북도 지휘관 육군 보병 정령(正領)의 직위에 있었다.

65) 조선왕실의 족보를 선원록(璿源錄)이라 한다.

신하 된 자가 차마 적세(賊勢)를 도와 의병의 진영을 패멸
시킬 수 있습니까?

李가 말하기를 국사(國事)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뜻 있는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바이나 도리어 왜인
에게 잡힌바가 되었으니 사리에 어둡고 시세(時勢)를 헤아리
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여 도리어 가석(可惜)합니다. 내가 비
록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으나 어찌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노인께서는 명하사(名下士)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대접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으니 숨
김없이 사실대로 고하시오. 후일 다시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언사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왜인의 중형(重刑)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내가 즉시 지필(紙筆)을 청하여 쓰기를 대명유민(大明遺
民)⁶⁶⁾이요 조선처사(朝鮮處士)⁶⁷⁾인 충청남도 남포군 화정
촌⁶⁸⁾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은 국가가 장차 망하는 것을

66) 명나라가 망한 뒤에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뜻

67)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68) 현재의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애통하게 여기고, 왜노(倭奴)가 방자하게 포학(暴虐)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낮이나 밤이나 원통한 마음을 안고 장차 왜놈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으로써 일생가문(一生家門)의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소위 선비라는 것은 본래 토지의 기본과 인민의 세력이 없으니 가히 할 만한 것은 필설(筆舌)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년 봄 정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장차 한 장의 상소로 임금에게 고하려고 하였는데 역시 왜놈들이 막아 형세가 급하게 되어 어찌할 수 없어서 통곡하고 돌아와 다만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호통(號痛)할 뿐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에 전 참판 민중식이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대장의 기(旗)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접해서 만나 보고 초백왕(楚伯王)의 배를 침몰시킨 계획⁶⁹⁾과 손토로(孫討虜)의 책상을 쪼개 용맹⁷⁰⁾으로 치하하고 인하여 의병을 일으킨 본지(本旨)를 물은 즉 閔台가 말하기를 먼저 五賊의 머리를 베고 또 오

69) 楚伯王은 곧 楚나라 項羽를 말한다. 項羽가 배를 빠뜨리면서 적을 토벌한 사실을 말함.

70) 중국 삼국 시대 孫權이 劉備를 도와 曹操 치는 의논을 하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쪼개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린 일. 이에 曹操가 孫權을 討虜將軍이라 하였다.

조약(五條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내가 말하기를 장군의 뜻은 크나 강하고 약한 형세가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깊이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니 민태가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군자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할 것이고 그 이해(利害)를 모의하지 아니하니 장군의 뜻이 이와 같다면 나의 뜻과 심히 한 가지입니다.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이번 길에 선생과 더불어 수레를 같이하여 入城하고자 합니다.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사례하기를 병사들이 죽는 땅인데 어버이는 늙으시어 몸에 병환이 계시니 감히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일의 형편이 그러시다니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가면서 다시 후일의 약속을 두었습니다. 홍주성으로 들어간 뒤에 또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그 의리에 감동하여 윤4월 7일에 홍주성으로 들어갔는데 8일 밤에 성이 함락되어 9일 아침에 잡혀왔으니 이 같을 따름이요 별도로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병진에 가담하여 나갔으니 의병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목(指目)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하는데 나는 죽더라도 원한이 없고 사는 것도 無色하니

오직 영관님의 뜻대로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李가 말하기를 내가 노유숙덕(老儒宿德)⁷¹⁾으로 대접해 드렸는데 마침내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솔직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하니 李가 말하기를 만약 민태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이러한 대사를 같이 모의하였겠습니까? 이미 의병 진영에 나아갔은 즉 어찌 하나의 군사를 인솔하고 온 것이 없겠습니까? 대장과 더불어 서로 만나 보았다면 반드시 대장에게 계책을 드린 것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말입니다.

하거늘 내가 안색을 바르게 하면서 말하기를 선비 된 자의 도리는 직(直)으로써 주간(主幹)을 하는 것이니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平生의 심법(心法)입니다. 지금 사실대로 대답을 하였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묻지 마시오. 사람들이 심정이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말을 사실대로 아니하는 것인데 나는 이미 몸을 죽을 땅을 밟아 다시는 살길이 없는 것인즉 무엇이 두렵고 겁낼 것이 있어 거짓으로 꾸미겠습니까?

71) 늙은 선비의 높은 덕.

李가 말하기를 이것으로 보고 할 것이니 혹시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秦나라와 漢나라 때 焚坑黨錮(焚坑黨錮)의 화(禍)⁷²⁾가 있는 뒤로부터 우리 동방 사화(士禍)에 이르기까지 어찌 한계가 있으리요 마는 오늘날의 일같이 큰 것이 없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 되겠고, 다시 무슨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가히 부끄러운 것은 민중식과 김상덕 등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임하여 도망을 가서 책임을 면한 것이요, 가히 불쌍한 것은 무고(無辜)한 城中의 백성 수 백인이 그 환란을 같이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기홍이 듣기를 다한 뒤에 나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였고, 즉시 돌아와 수감되었다. 유준근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숨길 것이 없이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남아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不義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왜병의 2차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다음날 왜병이 또 헌병소로 잡아갔는데 왜병 한 사람이 비

72) 秦始皇이 유교서적을 불지르고 유가 사상가를 땅 속에 생매장한 사실과 後漢 말 정치에서 宦官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이것을 공박한 志士들이 終身禁錮의 刑을 당한 사실

밀히 말하기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대개 왜병의 밀어(密語)는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비록 심히 의심이 나지만 말인즉 옳은 것이다. 혹시 내가 늙었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긴 것인가? 나를 따라 곁에 서있는 왜추(倭酋) 세 사람이 마루 위에 앉고 나의 결박을 풀어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심문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늙고 또 병들어 눈은 어둡고 귀는 먹었으며 어음(語音)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지필(紙筆)을 얻어 쓰기를 청한다. 하니 왜인이 저희들의 지필을 내놓거늘 받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 너희 나라의 물건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너희들의 지필이 손에 익숙하지 아니하니 다시 우리나라의 지필을 와라 하니 과연 우리나라의 지필을 내주는데 저들이 나의 기식(寄食)이 험떡거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 말하기를 노인의 기력이 반드시 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미움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창자에 가득한 화열(火熱)로 인하여 먹지 아니해도 스스로 배가 부르다. 냉수 한 그릇을 먹겠다. 하니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냉수를 마신 뒤에 일필(一筆)로 썼으니 그 말에 가로되 어리석은 나는 본래 書生으로 군대의 일은 알지 못하였는데 의병 대장 민종식의 거행하는 일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장차 한번 뵙고 계책을 드리려고 하던 즈음에 의병 대장이 우리 집 앞마을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나를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앉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 보고 위로를 한 뒤에 의병을 일으킨 大義를 물으니 閔台가 말하기를 오적을 먼저 참(斬)하고 또 오조약(五條約)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대답하기를 영감의 뜻은 크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일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함은 계산할 것이 못되고 장차 大義를 펴고자 합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복하여 용맹스럽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서로 이별을 하였다.

뒤에 홍주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시켜 들어오기를 청하므로 어리석은 뜻에 한 번 가서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드리려고 윤4월 초 7일에 입성하였는데 8일 저녁에 성이 함락되었으니 그 사이 서로 만나 본 것이 세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방수(防守)의 계책을 약간 말하였는데, 閔台가 모두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불만이 심하였으므로 늙은 어머니를 계시다는 것을 이유로 작별을 하고 장차 돌아오려는 즈음에 성이 함락되어 잡히게 되어 장차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사(國事)에는 무익(無益)함이 많았고 노모(老母)에게는 죄를 얻은 것이 크니 비록 죽은들 어찌 한이 되겠는가. 진중에 머무른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軍中에 모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군사장(軍士長) 전 승지 김상덕(金商憲)과 中軍 이세영(李世永) 두어 사람만 알고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한다. 나는 위로는 장수의 직책에 참가하지도 못하였고, 아래로는 병졸의 대열에도 보충되지 못한 채 다만 책임 없이 있었다. 비록 그러나 이미 의병 진영에 나갔고 또 대장과 더불어 수 차례 군중의 일을 말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괴수(魁首)라고 하여 참모장이라고 억지로 말을 하니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三學士)의 혼령과 같이 놀 것이고, 혹시 살아나간다면 청음(淸陰) 김선생(金先生)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는가 다만 너희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요. 다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저들이 이것을 받아서 본 뒤에 다시는 묻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를 정성 들여서 다시 써달라고 청하였다.

마루 위의 동쪽 편에서는 잡혀온 의병들을 형장(刑杖)으로 다스리는데 차마 듣지 못하였고, 차마 보지 못하겠다. 공초(供招)를 다 쓰고 나서 소리를 내어 크게 곡하면서 말하기를

괴수(魁首)와 장졸(將卒)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한 일도 없이 잘못 잡힌 사람을 지나친 형장으로 죽이니 이것이 무슨 지경인가. 청하건대 우리 몇 사람의 머리를 베고 무죄한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그리고 유준근도 큰소리로 역시 힘써 싸워 말리니 저것들이 이에 형장을 그쳤다.

82명의 의병 가담자 서울로 압송되어 가다.

2일을 머무르고 나니 홍주군수 윤시영(尹始榮)이 선유문(宣諭文)⁷³⁾을 싸 가지고 옥중으로 와서 둘러보고 살펴보았으나 선유문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갔다. 이자는 곧 남인(南人)인데, 유준근과는 더불어 인아친척(姻婭親戚)⁷⁴⁾인 데도 결눈질하여 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모양인가? 하고 다시는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날 즉시 관청에 글을 올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들 몇 사람을 괴수로 하라고 청하였는데 홍주군수가 결재가 없었으니 저들에게서 겁을 먹은 것을 가히 볼 수 있겠다.

홍주군수편으로 인하여 집에 서찰을 비밀리에 부쳐서 살아 있는 것을 알렸다. 그 이튿날 100여 명을 석방하였으니 반드

73) 임금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내리는 글

74) 사위의 아버지와 동서를 말함이니 곧 인척(姻戚)

시 이것은 어제 형장(刑場)에서 우리 두 사람이 힘써 말한
탓일 것이다.

윤4월 16일에 왜병이 우리 의병 82인을 다 포박하여 경성
사령부로 압송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괴
수라고 하여 매양 노상(路上)에서 앞에서 이끌고 나갔는데
머리에는 관과 망건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었으며, 발
에는 짚신을 신고 얼굴을 드러내고 걸어가니 창피가 막심하
였다.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두렵고 겁을 먹어 피해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걸어서, 말을 타고, 기차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

예산 신례원 주점에 이르니 남경천의 늙은 어머니가 그 처
첩과 더불어 와서 서로 붙들고 곡을 하니 길가는 자들이 눈
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인 남녀가 문밖에서 엿보
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이 참모장인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사리에 당연하지만 어찌해서 우리 상민(商民) 세 사람을 죽
였는가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일이 원수(元帥)에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러니
까 왜인들이 머리를 끄떡이고 나갔다.

17일에 온양에서 유숙하였는데 온양군수 권중억(權重億)이 의병들에게 조석(朝夕)밥을 먹여준다고 하는 까닭에 마음이 심히 기뻐서 말하기를 온양군수는 우리편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 밥을 먹이는데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의 소금밥이 왜인의 밥과 같았다. 내가 분하게 여겨 물리치고 관속(官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 여러 사람은 이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의 책임을 맡은 관원에게 고하라고 하고 인하여 사서 먹었다.

그 이튿날 길을 출발하는데 다리 힘이 다 빠져서 능히 걸음을 견지 못하게 되어 본관(本官)에게 한 필의 말을 청하였다. 그런데 왜인이 이것을 금지하여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한 필의 말을 준비하여 대기시켜 줌으로써 말을 타고 천안 정거장에 이르렀다.

저 사람들이 차 타기를 청하거늘 내가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여러 왜인들이 불들어 태웠다. 시간 사이에 성환역에 이르러 종숙 泰五의 집이 바라보이는데 소식을 통할 겨를이 없었다. 순식간에 서정(西井)에 이르렀다. 조우여옥(趙友汝玉)이 마침 길 곁에 있었는데 언급할 사이가 없이 이미 차가 출발하였다.

서울 왜병 사령부 감옥에 갇혔다.

해가 질 무렵 남대문 밖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선혜청(宣惠廳)으로 들어가니 곧 왜인의 감옥서(監獄署)이다. 그 날이 곧 윤4월 18일이었다. 끌려온 82명 중 매양 5-6명씩 정하여 각 칸에 별도로 수감하고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柳濬根 李弼 申鉉斗⁷⁵⁾ 文奭煥 南敬天 5명은 한 칸에 수감되어있으면서 더불어 매양 의리를 강마(講磨)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맹세하였다.

왜병이 주야로 수직(守直)하며 동정을 살피면서 중외(中外)를 격절(隔絶)시키니 비록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웃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 날 저녁에 또 한 덩어리의 밥을 주거늘 인하여 물리치고 먹지 아니하면서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니 모든 왜인들이 와서 먹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홍주에 있을 때 의리로 처리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伯夷는 오히려 주나라 성인의 곡식도 먹지 않고 죽었는데도 전성후현(前聖後賢)이 모두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 같은 이적(夷狄)의 곡식을 먹겠느냐 하니 왜인들이 말이 막히어 물러갔다.

75) 병오 홍주의병에 우익장(右翼將)으로 가담하였다.

왜병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다.

그 이튿날 사령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것들이 오만한 말로 우리를 대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오만한 말로 나를 대하느냐 하니 저것들이 말하기를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君上을 범하였느냐 도당(徒黨)을 거느리고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였느냐 장차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백성을 위하여 해독(害毒)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또 너희 나라의 국토와 토지와 인민을 탈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이르는가. 만약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의병이라고 이르는가. 너희들은 본래 오랑캐들이라 義字의 本旨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義라고 하는 것은 사덕(四德)의 하나인데 그 의리를 행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그 이해(利害)를 꾀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前人이 하신 말씀이 하려고 하는바가 없이 하는 것을 義라고 하였느니라.

저것들이 말이 굴복되니 단서를 고쳐서 문기를 대장 민종식의 간 곳을 반드시 알 것이니 자세히 고하라 하거늘 내가 정

색을 하고 말하기를 만약 민장(閔將)이 가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역시 그 때 따라 갔을 것이니 어찌 앉아서 기다리다가
잡혀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무한한 곤욕을 당하겠는가. 너는
반드시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
찌 즐겨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는가 라고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천하에 막강한 나라인데도 우리
병사가 멀리 만 리를 건너가 백 번을 싸워도 반드시 이겼는
데, 한국의 약함으로서 어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너
희들이 비록 만 번을 싸워도 만 번 패할 것이고 백 번을 일
어나도 백 번 멸망할 것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또 제정이달건갑리병(制挺以撻堅
甲利兵)⁷⁶⁾이란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믿는 바는 仁
義이니 목장(木杖, 나무 몽둥이)이 어찌 반드시 필요하리요 인
의(仁義)의 주먹으로 족히 당할 것이다. 하고 두 주먹으로 물
건을 치는 모양을 하니 저것이 깔깔거리고 크게 웃었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하거늘 내
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남녀를 막론하고 10세 이상이
면 모두가 너희들을 토벌할 마음이 있으니 그 숫자는 가히

76) 木杖을 만들어 굳은 갑옷과利로운兵器를 가진 強兵을 종아리
친다는 뜻, 孟子에 있는 말임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양국이 화합하여 좋게 지내면 의병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만약 화합하여 좋게 지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너의 나라 임금이 우리 성상과 더불어 산하지맹(山河之盟)을 약속하고 너희 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조정과 더불어 금석지문(金石之文)을 만들어 양국 신민(兩國臣民)에게 두루 보이고 동서양 모든 나라에 골고루 보이어 서로 침범하지 말고 각각 봉강(封疆)을 지키고 각각 정교(政敎)를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날로 萬人을 죽인다 하더라도 의병이 끊이지 아니하여 필경에는 너희들이 먼저 패망할 것이다.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답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경륜(經綸)은 다 이것이 허사이다. 하늘의 一陽이 우리나라에 홀로 있나니 天理는 사람의 힘으로 가히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대도(大道)가 역시 우리나라에 있나니 사람의 대도는 병력으로 모두 멸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너희 땅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소소(昭昭)하니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밀유(密諭)⁷⁷⁾가 閔將에게 비

77) 임금이 비밀리에 내린 글.

밀리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만약 밀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왕사(王師)⁷⁸⁾이지 의병이 아니니 의병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의리로 일어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알았다면 민장으로 하여금 먼저 밀유를 쓰고 다음에 전령을 써서 一國에 포고하게 하여 영(令)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역명(逆命)으로 참하였을 것이니 어찌 외로운 성에 홀로 앉아 스스로 패망을 맞이하겠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럴 것 같다고 하였다.

저것이 문기를 같이 수감된 자 가운데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巾鉉斗 南敬天 두 사람은 잡혀 온 후 처음 알았고, 유준근과 이식과 문석환 세 사람은 본래부터 친한 사람들이고 그밖에는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中軍 李世永⁷⁹⁾은 어디에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중군의 집은 어느 곳이며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거늘

78) 왕의 정식 군대

79) 이세영(李世永, 1869~1938) 아산군 음봉면 신희리 출생. 1896년 을미 홍주의병에 가담하였고, 1899년에는 부위(副尉)가 되어 친위대 부관이 되었다. 병오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종신 유배형을 당하였으며 석방 후에는 성명학교(誠明學校)를 세웠고 만주에 망명해서는 신흥학교 등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일을 같이 한 사람인데 거주하는 곳과 어느 집 자제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리는 같으나 일은 같이 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참모장이 되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참모장은 홍주 옥중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억지로 이름지은 것이지 나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내가 남포사람인데 같은 道와 같은 시골 사람을 알지 못하며 어찌 참모장을 아니 하였다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서울의 士大夫이다. 충청도 시골로 내려간지가 불과 10년인데 유행하는 풍속과 더불어 화합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독서를 하였으며, 또 交遊하는 것을 끊었으니 어찌 같은 시골 사람을 모두 알겠는가. 또 참모는 대장의 막하(幕下)이니 내가 비록 하나의 士人이나 閤台가 감히 나로서 막하의 任員을 하게 할 수 없고, 비록 그 참모의 책임을 맡기고자 하였더라도 내가 즐겨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보면 가히 알 것이다. 만약 탐문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너는 마땅히 사형을 당하여야 한다.

이어서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죽는 것은 진실로 내가 원

하는 바이니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까닭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오적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오적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묻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괴수는 박제순(朴齊純)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朴齊純을 괴수라고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역적놈은 나의 선생의 자식⁸⁰⁾으로 위인이 준매(俊邁)⁸¹⁾한 까닭으로 괴수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李址鎔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그런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從姪이기 때문이다. 저놈이 임금의 至親으로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先後가 없느니라. 네가 만약 오적을 보거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것이 말하기를 물러가 쉬거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조식밥과 의복과 약물과 지필묵 4건을 들이게 허락해달라 만약

80) 박제순은 세도정치기의 세도가인 반남 박씨의 후손이며, 그의 아버지 朴洪壽가 윤석봉이 유종교와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기 전의 스승이었다.(윤석봉 행장, 문과방목)

81) 재주가 뛰어난. 박제순은 188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합격함

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絶食을 하고 죽으리라 하니 저들이 허락하였다.

사령부 감옥에서 면담 최익현도 끌려와 함께 갇혀 있음을 알았다.

그 날로부터 나의 밥이 비로소 들어왔으니 족척지구(族戚知舊)간에서 보낸 것인데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밥 편에 家兒⁸²⁾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가 밥 가운데서 나왔다. 재차 취조를 당한 뒤에 父子가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였더니 저것이 굳이 거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부자는 천성이니 하루동안에 별안간 죽으면 부자의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저 왜인이 말하기를 정리(情理)는 그런 것 같으나 법의(法意)가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아침에 수직하던 왜병이 조각 종이에 勉菴先生의 성명을 써서 창문사이로 보여주거늘 놀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문기를 어느 날 이곳에 오셨는가 하니 왜병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왔다⁸³⁾고 하거늘 이에 같이 수감된 여러 사람들

82) 養子 尹秉源을 말함

83)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제자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

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죽을 곳을 얻었도다. 閔將이 도망쳐서 숨은 까닭으로 저것들과 더불어 서로 힐난(詰難⁸⁴)하는 즈음에 수치가 심하더니 마침내 이 노인이 같이 수감되었으니 만장(萬丈)의 영광이 생긴다. 오늘 이후 문초하는 처지에서는 諸君들 역시 勉翁으로 주장(主將)을 하라 하였다.

다음날 문초하는 마당에서 내가 말하기를 최판서를 어찌해서 잡아왔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까닭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매양 나를 민장군 막하로 여기는데 나는 본래 민장의 휘하가 아니다. 내가 최대감과 더불어 40년 구교(舊交)로 지금은 선생으로 대하나니 가히 살아서는 뜻이 같고 죽어서는 전하는 것을 같이 할 정의(情誼)이다. 오늘의 일에 이르러 사생영욕(死生榮辱)의 의리를 홀로 달리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로서 최대감의 참모를 하게 한다면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인하여 勉翁이 수감된 곳을 찾아가 보게 하기를 청하니 왜병이 엄히 금하여 가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君師父는 一體로서 그 있는 곳에 따라서 죽기도

다가 체포되어 압송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최익현은 석방되지 못하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殉節한다.

84)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묻고 따지는 것

하는 것이니 우리 아이가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 보기를 청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 스승을 보고자 하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으니 가령 우리 군주가 계신다해도 너희들은 허락하지 아니하겠는가. 천하에 어찌 人道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倭酋 하나가 말하기를 공은 賢人이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현인은 聖人の 버금가는 것이니 어리석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 또 말하기를 학자이십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옳다 라고 하였다.

3차 심문에 일본 침략의 부당성으로 대응하였다.

3차 취조를 하는데 大義는 한결같았다. 종말에 가서는 倭酋 하나가 나에게 이르기를 일본이 年來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귀국이 천하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양국이 교섭하는 일을 해롭게 한다 하거늘 내가 기운을 내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무슨 보호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국모를 시해(弑害)하고 백성들의 임금을 수감하는 것이 이것이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年前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몰아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쏘아 결박을 해서 먼저 총포의 탄환을 받아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보호한 것인가.

마관조약(馬關條約)⁸⁵⁾이 견고하기가 金石과 같고 밝기가 日星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등(伊藤)⁸⁶⁾이 그 약속을 변개(變改)하여 통감을 두고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을 못하게 하였고 각 항구에 이사(理事)를 나누어 두어 우리 방백 수령(方伯守令)으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각국 공사(各國公使)를 파직해 보내어 하여금 공론이 있지 못하게 하였고 오적과 一部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광산(鑛山)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옮기어 국재(國財)로 하여금 고갈하게 하였고 인종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였으며 우리 都城의 民家를 헐어 모두 너희들의 집을 만들었고, 공해(公廨)를 빼앗고 들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었으며, 관제(官制)와 법령(法令)을 하나같이 너희나라 법식과 같이 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종을 꾸짖듯이 돼지를 질타하듯이 하였으며, 우리의 의관을 훼손하여 모두 너희들의 법과 같이

85)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오 사이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하였으나 청의 간섭을 배제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들어있다.

86)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천지의 법상(法象)이 양(陽)은 높고 음(陰)이 낮은 것은 제왕의 家法이요 중화를 존숭하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런 구분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는 의관(衣冠)과 안으로는 지행(志行)에 의해서다. 피발(被髮)⁸⁷⁾도 오히려 오랑캐 풍속이거늘 하물며 삭발(削髮)⁸⁸⁾이겠는가. 상의하상(上衣下裳)과 방령원매(方領圓袂)⁸⁹⁾는 의복의 제도인데 너희들의 입는 옷이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五性과 五倫은 이것이 사람의 뜻과 행실인데 너희들의 풍속은 병기(兵器)의 편리(便利)로써 능사(能事)로 여기고 화물(貨物)의 신기(新奇)한 것으로써 양재(良才)로 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기만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하니

저것들이 말이 막히었는지 다른 말로 돌려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이 여기에 이르는가. 하거늘 내가 소리를 엄숙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 사람이 나를 물러가게 하거늘 내가

87) 머리를 풀어 트림

88) 머리를 깎음

89) 위에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모진 것, 둥근 소매

말하기를 3차 문답에 뜻이 다하고 말이 고갈되고 피차 거친 것이 생겨 별달리 한가지 결론에 돌아갈 수 없으니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라 하였다.

감옥에서 왜병에게 시를 지어주다.

감옥에 있는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45일이다. 새벽과 저녁에 매양 경전(經傳) 가운데 있는 의리 문자를 외웠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혹시 자기들을 원망하는 일로 알고 엄히 꾸짖어 금지하였다. 혹 시구(詩句)를 읊조리면 역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사사로이 서로 말하는 것도 이미 심하게 금하니 대개 그 나라의 법이 이와 같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영산(永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왜인이 사람됨이 순수하고 어질어 우리들에게 글을 읽고 시를 짓기를 청하였다. 시가 이루어지니 이식이 곁에 있으면서 시를 읊조리는데 소리가 조금 높았다. 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묻거늘 시를 지었다고 대답하니 저것들이 보여주기를 더욱 청하거늘 이식이 말하기를 저것이 시를 보고 노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미 死地에 들어왔으니 저것의 노하는 것

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약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니 보여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이식이 보여
주었다. 시에 가로되

나라에 장차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이 사람을 내려보냈는
데/

한 조각의 외로운 성을 가지고 더러운 티끌을 씻어 버리고
자 하였지/

어떤 마음으로 뜻 있는 선비가 모두 재액을 같이 하였는데/
가히 웃기는구나 장군이라는 자가 홀로 몸을 도망하여 재액
을 면하였도다./

죽기 전에는 마땅히 옛 것을 지키고/

살은 뒤에는 다시 새롭게 도모하리/

대의를 펴지 못하였으니 어디를 쫓아 호소하겠는가/

낮이나 밤이나 성스러운 主上이 참되시기를 우러러 바라노
라/

또 가로되

한 방 감옥 속에서 수 십일을 머무르니/

지나가는 재액은 어느 때 비로소 나갈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것은 지혜와 용감함이 아니
구나/

장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춘추대의를 잡아야 한다네/
사방의 많은 선비들이 연옥(燕獄)을 같이 하였는데/
하나의 외로운 신하가 홀로 초수(楚囚)⁹⁰로 흐느끼누나/
험한 길을 밟아오면서도 평지같이 보이니/
안심하는 이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

또 가로되

머리에는 쓴 관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으니/
두루 수인(囚人)을 상고하건대 옛날에도 드물었구나/
황패(黃霸)⁹¹는 옥중에서 글을 스스로 읽었고/
소랑(蘇郎)⁹²은 해상에서 기러기가 일찍이 돌아왔네/
작은 표주박이 간신히 들어와 빈 구멍을 통하니/
온전한 몸은 겨우 용납되어 한자의 삼작을 잠기었구나/
하늘이 남은 해를 빌려주어/
살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석양 낙시터에서 낙시를 당길 것일세/
라고 하였다.

永山이 받아서 본 뒤에 조각종이에 써서 보이기를 공 등(公等)은 충신지사(忠臣義士)이시니 가히 공경하여 숭복하겠습

90) 타국에 사로잡힌 자. 초나라 항우가 진시왕에게 옥중에 수감된 사실에서 나온 것.

91) 한무제 때 사람으로 옥중에서 나와서丞相에 이른 인물

92) 송나라의 문장가 東坡蘇軾 즉 蘇東坡를 말함

니다. 라고 하였다.

답하여 쓰기를 충신의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어찌하여 잡아 가두었느냐. 하니 永山이 말하기를 국법이 그리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병이지심(秉彝之心)⁹³⁾ 같은 것은 저들이나 우리가 일반임을 가히 볼 수 있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人才라 하고, 柳濬根을 가리켜 말하기를 名士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초에 답할 적에 언사(言辭)가 정직하였던 까닭이다.

홍주로부터 서울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나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다만 내가 늙었다 것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나라 풍속에 학문지사(學問之士)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였다 한다.

아~섬 오랑캐의 인도(人道)가 없는 자로서도 오히려 학문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거늘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환장역두(換腸易肚)⁹⁴⁾한 자들은 의병을 칭하기를 비도(匪徒)⁹⁵⁾라 하고, 소위 장수의 직책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는 병대(兵隊)를 인솔하여 토벌하는가. 또 기타 시대의 무리들로 조금 빼어난 자

93) 하늘에서 정한 상도(常道)를 지키는 마음.

94) 창자가 바뀌고 배가 바뀌어진 사람 즉 마음이 변한자.

95)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의 무리.

는 말하기를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하고 임금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고 나라에 큰 해로움이 된다고 하여 의병을 공격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오직 도성아래 시정(市井)사람들과 여대주졸(輿臺走卒)의 천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의병을 사모하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니 식견이 서로 반대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동안의 감옥 생활을 돌아보며

그 사이에 곤궁한데 처하여 지필(紙筆)로 가히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 만큼이며, 자리 없는 땅에 팔을 구부리고 드러누운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혹 한 때와 하루를 밥을 먹지 못한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밤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무릎을 붙이고 앉은 것이 역시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머리를 빗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한지가 40 여 일인데 터럭은 흩어지고 옷에는 이가 생기니 가려움을 긁어 피부가 상해서 전체가 문둥이가 되었으며, 손톱은 깎지 아니하여 그 큰 것이 一寸이나 되는 것 같고, 입은 양치질을 아니하여 피가 흐르는 것 같으며, 얼굴은 씻지 못하여 때 자국에 먼지가 생기고, 왜놈들에게 꾸짖음과 욕설과 주먹과 발

길질을 당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으나 태연히 있으면서 한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혹 평일 소득(所得)이 경전(經傳)가운데 동심인성(動心忍性)⁹⁶⁾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질이 심히 약하여 주림과 배부름과 추운 것과 더운 것에 조섭(調攝, 몸조리)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따라서 병이 생겼는데 두어 달 사이에 하나의 작은 병도 없었으니 혹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와서 그런 것인가. 수백 명의 수감된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나와 勉翁이 홀로 이 욕을 면한 것은 우리들의 덕이 성인의 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데 저들의 악한 것이 역시 광인(匡人)과 환퇴(桓魋)⁹⁷⁾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석방되었으나 마음은 편치 않다.

5월 22일에 불려서 가보게 되었다. 勉翁의 일을 물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사령부에 이르니 왜추가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홍주와 남포 두 고을의 보고를 본 즉 노인의 말이 과연

96) 孟子 告子下나오는 것으로, 하늘이 어떤 고난을 내렸을 때 마음을 분발하고 성질을 잘 다스리면 더욱 聖人の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

97) 공자가 匡땅을 지나는데 匡人이 공자를 陽貨로 알고 포위하고 욕을 보였으며, 또 공자가 檀木아래에서 강론하는데 桓魋가 공자를 죽이려고 檀木을 베어 넘긴 고사.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석방하여 내려가게 하니 뒤에 만약 민중식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 다시는 이런 일에 관계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말은 모름 지기 말하지 말라. 비록 열 번 의병이 다시 일어나도 곧 내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 비록 참여하지 아니하고자 하나 의병의 무리가 어찌 나를 놓아두겠는가 라고 하였다.

倭酋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작별을 하니 그것들 역시 人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다시 사령부로 들어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하고자 하니 왜병이 굳이 거절을 하였고, 또 勉翁을 보고자 하다가 역시 뜻대로 안되어 내가 말하기를 멀리 서서 그 안색(顔色)만이라도 보고 가려 한다. 하니 왜인이 성난 눈으로 흘겨보면서 말하기를 법률이 이와 같아 가히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내가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법이 이와 같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도성 안이니 어찌 너의 나라 법을 시행하는가. 人情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 동안의 일을 기록하다.

사차(私次)에 나와 앉으니 원근에 사는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스승과 친구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석방되었으니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이른바 벗어났어도 구류된 것만 같지 못하고, 살았어도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하고 가마를 타고 곧바로 묘노(墓奴) 정금용(鄭金龍)집에 이르니 족척사우(族戚士友)가 많이 찾아왔다. 의관(衣冠)과 대이(帶履)를 사방으로 구하여 하루를 머물고 사동(社洞)에 있는 구종(具從)⁹⁸⁾의 집에 이르니 서울과 시골에 사는 사우들이 찾아와서 보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 분분하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6월 5일에 고향 고곡(高谷)⁹⁹⁾으로 즉시 돌아와 아버님 묘소에 전배(展拜)하고 한바탕 통곡을 한 뒤에 분암(墳庵)¹⁰⁰⁾으로 돌아와 앉아서 흠어진 정신을 억지로 거두어 그 동안의 전말(顛末)을 간략히 기록하니 오직 보는 자가 재량으로 선택하는데 있다.

영력(永曆) 260년(1906년) 병오 6월 7일에 삼희당 병든 늙은이는 급히 초하노라

98) 具氏姓을 가진 戚從 兄弟을 말함이니 尹錫鳳의 外家が 綾城具氏였다.

99)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100)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묘소 아래에 지은 집, 일종의 묘소 관리사이다.

부록

〈홍주 倭兵所에서 供招한 말¹⁰¹⁾〉

남포처사 윤모(尹某)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나는 본래 서생(書生)으로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데 의병대장 민종식이 맨손으로 거사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장차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즈음에 의병대장이 이번 4월 초에 기(旗)를 세우고 의병을 인솔하여 우리집 문앞을 지나가니 그곳이 한천시장(寒川市場)이다.

민종식이 사람을 보내어 만나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얹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서 위로의 말을 물은 후 거병(擧兵)의 대의를 물으니 閔將이 답하기를 근일의 5條新約을 도로 되찾고 매국 오적을 먼저 참(斬)할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대감의 뜻은 크시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하시겠습니까. 민장(閔將)이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미리 예측할 것이 못되나 나의 뜻은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나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이와 같은 대사(大事)를 거행한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기

101) 이 부분은 홍경일기의 본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경일기의 책갈피에 2장의 종이에 써서 보존되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빼하면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동
 하여 탕화(湯火)에라도 용맹스럽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
 고 인하여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閔大將은 곧바로 남포읍으로 들어가 몇 일 동안 머물다가
 홍주로 발행(發行)한 뒤에 여파 차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내가 홍주로 오기를 요청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따
 의 소견으로 차서 한번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간략히 드리고자 하여 금월 초6일에 홍주성 안으로 들어왔
 다. 요요한 營中을 관찰한 즉 요지(要地)와 근거(根據)가 남포보
 다는 나으나 군사제도(軍師制度)가 연습되지 못하여 통채착
 없었고, 사위(士友)들이 책략을 드려나 받아들이지 않는 까
 닭으로 마음 속으로 심히 불만스럽게 여기어 즉시 돌아가기
 를 청하고, 또 사례(謝禮)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어
 감히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閔將이 말하기를 청세
 (情勢)가 그러하니 아미를 행차를 하시었으니 하룻밤 유숙하셔
 고 돌아가시라고 하였다. 翌日 大將을 慰勞 營中 入見 閔將
 이날 밤 새벽이 되어 성이 과연 함락되어 패망하니 민장(閔
 將)은 사기(事機)를 알리지 않고 성을 나가 홀로 도망쳐 버
 렸으며, 나는 달도 없는 깊은 밤에 산천이 생소하였다.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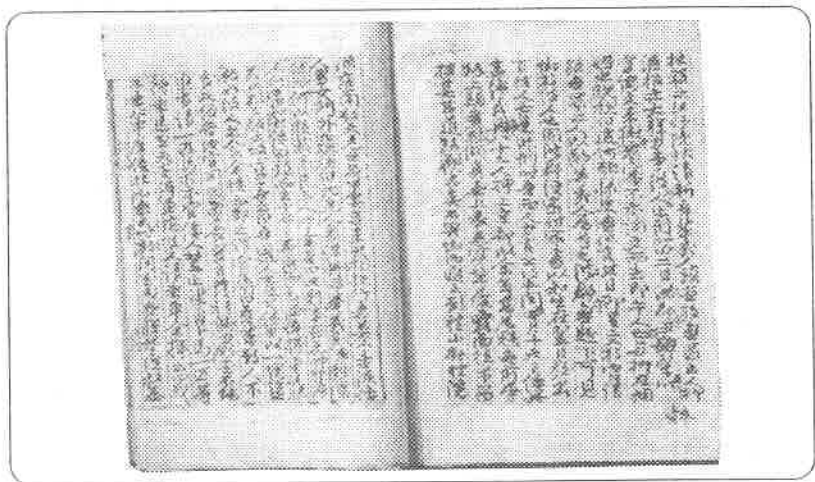
삼종질 용원(容源)과 더불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흉한 불길을 면한 이웃집에 있다가 마침내 日兵에게 잡혀 지금까지 수감되어 장차 사경(死境)에 이르렀으니 국사(國事)에 무익한 것이 많고 늙은 어머님에게 죄를 얻은 것이 너무 크다. 비록 죽은들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의병 진영에 머물러 있는 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진중에 모인 자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軍師長 金商憲과 中軍 李世永과 더불어 두어번 말을 했을 따름이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며 모든 사무도 다 살피지 못하였다.

이미 閔台와 더불어 두어 차례 면접(面接)을 하였은 즉 어찌 가히 의려(義旅)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위로는 장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고 아래로는 졸도(卒徒)의 행오(行伍)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나를 괴수라고 하여 억지로 참모대장이라 이름을 한즉 비록 이것이 잘못 인정된 것이지만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의 영혼과 같이 놀 것이고, 혹 살아난다면 김청음(金淸陰) 선생의 묘소로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다만 너희들의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니 다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단락의 구분과 제목은 가 임의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임.

V. 홍경일기 원문



홍경일기



웅천 대천리의 집성당

[illegible]

洪獄京部兩廵合記 丙午

乙巳十月二十一日五賊

杜齊純李士鎔李根澤李完用權重顯

賣國於倭奴

從此而四千年聖賢道脉於是乎絕矣三千里祖宗疆土於是乎失矣五百年宗社於是乎將墟矣二千萬人種於是乎將滅矣舉國臣民凡有血氣霜具髮性者孰不憤痛而就中東春秋之義者識君臣之分者尤所披瀝而切嗟欲保道脉而將雪國耻儒賢宋東塘大臣趙秉世輔國閔泳煥侍郎洪萬植諸公引義仗節外他籍紳章甫抗疏力爭者治至百餘人下至輿臺走卒自刎而死者亦有

之足可見東方禮義之俗尚比未泯永有聲於天下
後世矣諸賢之不爲不多而其歸則潔其身而已
不能掃精妖氣也以故深教爲吏不爲畏懼依旧肆
虐趾踵陸梁噫彼賊臣尚保首領朝廷顯揚惟我
勉養崔先生憤仇虜之得志痛國家之將亡約誓同
志士友一以效趙重峰大義一以禦王孫賈故事光明
正義俟後聖而不惑質鬼神而無疑者也愚與此老
生同志死同傳之舊誼謹畫方畧乞題緒略定而誌
未發兵矣前奉判閩宗植盡賣其田宅財物廣募
衆士先於勉翁而起軍過吾家前大川市留陣將欲

建大將旗鼓過藍浦之大川牧暑留陣與吾居隣也

欲

出見之際閔台使人請見故出而勞問請間大計閔
台曰先斬五賊以正國法還索三條以固邦本而智謀淺
短兵力寡弱成敗利鈍不敢逆觀也余感其言遂致辭
曰台計如此國其庶幾乎閔台曰今行將欲帝先生
而並驅陣中余谷曰心則許而身不敢出也大老至之親
常在病席賈年將迫且無兄弟儲養賤年將
迫七旬果難馬文淵被甲上馬之力且乏張子房運籌
帷幄之策從去何益但此心斷無他雖在千里之外
敢效三老重公之策也閔台曰情勢然矣今向洪州
早晚間一枉做策以助吾軍余谷曰謹奉教其日

即四月二十二日也後數日聞洪州入城之報軍勢稍振
士卒日集庶有可圖之勢云且閔台遣人有請見之
言故閔月初四日率族侄客源士人李教憲二人乘
轎率家丁五人至保寧驛店遇雨前保寧郡守朴
鴻陽送子請入此友素所相識者且志氣豪邁亦
於此事不無相助者人見則病淹數日症候非輕雖
呻吟之中作氣動客三旦論慷慨有多少謀畫推閔台
面安余密傳其計未必十分節中而大體則不失也滯
而留一日畧論軍務利害初六日發程至洪州城下甲傳
兵已到四面圍而留酒店彷徨之際有二三少年知其

一見之託

吾行疾入坐房曰小生等徐仁錫也而聞先生行次
急來矣事極危急退步暫隱於先生家以觀事
機而入城甚好矣更思則其言是矣即入徐生家留
馬曉頭察其動靜直走城外門閉不得入而俟兵
稍集矣將欲還市徐先生危邦不入雖有古訓此是
自己無閑事且無駐軍於人也既與人相約而乃以
賊執其甚惡不救其亂於義我不可見夫石至城謂
守門將曰監浦尹某來到意通將臺即為開門守
門將知吾行不待將令而開門其時勢之急可知
也直入軍師長金商息処所前承旨金福漢隨吾

後欲入門聞不道遂退去華山李承旨傑家還
木家乃與金商選柳浩根數語後進見大將所署同
軍中事固觀營中軍制失律士心解體無賴雜名表
裏營私出沒喧鬧敗亡之兆不日在即且賊兵攻城甚急故
畧言其危急之狀且請其防守之策閔台曰倭兵之來
都是虛言願長者勿遽焉余答兵貴勦不貴驕
台專何言之易也吾今來時騎兵步卒並進迨過數
百人何謂虛言閔台曰此必一追會也倭兵則無一人
來者先生何恐動乃爾余乃不滿於心更不問一事
又不言一策退坐私次與金商選柳浩根執手而數日

柳二友

大事去矣將奈何吾與閔台本不約死且無職任則余
 與柳友初無可死之義今日之事與丙丁江都之役不
 同彼時江都廟社其大君主子所在仙源以下諸公
 皆以君命守城其義與吾輩自下義起所重自
 別雖然金令則既其閔台死生榮辱義無猶豫若
 兵敗之日不爲戰亡則自現就囚聯名上疏待罪奉
 行而疏辭大意以擅用國帑官錢引罪備重而所
 稱則似未死臣等書之金令曰死罪臣何如余答
 曰令兄豈以尼尹江都事自處乎金令曰然則戰
 亡於義何如余曰義兵自下而起本非自上命

將出師則避賊脫身更圖再舉未爲不可其義與
戰陣無勇不同若勢窮力盡回避不得則罵賊而
死又與睢陽之巡遠錦山之重峰不異矣又曰吾與柳友
處義雖與兩令差別若當難免之境則不可苟生遂
約誓題紙曰新膽盃酒並行不悖即題曰洪陽
城東一孤臣非子誰能成此仁吾亦斯時同義者
但知有國不知身金令大護曰今而後始知老兄學
問之力也金令詩曰我祖桑翁麗季臣生輕義
重自成仁況今人獸金盃別祗合從容殺此身柳友
詩曰孤城風雨伴逋臣人鬼關頭各蹈仁萬世芳

相見

則統軍

中團聚首綱常俱係自家身閤台軍中多務故不
與焉因酌酒相飲之際一少年崔狀在傍中丸血滿
席砲丸如雹亂下一座大驚失色吾謂金柳二友曰坐
此中丸而死全沒義諦後定舍館於他所相議防賊之
方可也即移坐西廂內空舍遂送金令於大將所具道
時急之快夜已深矣金令來至閤台不納人言主何
會坐未幾砲響四起天地震動大砲一拜城門破碎
倭兵突入火矢衝天丸下如雨城中水勢湍大軍四散
百姓涕哭如亂蛙咫尺難通閤台去留莫知金令下人
五六名急抬金令出戶柳友隨出轉瞬之頃不知所去李

二在呼吸

教書四金柳西人出巡備此老道之際

伏未知得何以處之乎

余曰此城出守與江都教書

不同惟在自家心義如何耳李友中先生何處之矣曰

黑夜難步道過山川不慣吾何出去中路萬一中九而死是

地名之記矣不知出領謂李教書安時中四連出也固執

方源手曰死生

舍中前後左右殺人之聲如亂刀斫物不忍聞之而日已曛

矣正衣冠端坐以待被執矣倭兵二人直入中舍圍視而

出少間又一兵來探直出定源謂余曰此吾生門方也余曰

死生命也不必動心也使客源出取所裹一塊襦以飲一

臺酒而棄以臺少顧而飲居未幾傳燕人又來先執芳
澤曳出是時余方隱身窗壁間故傳奴未及見也意謂
即地受刃也時余心以為此怪由我而死不如我先而果後也
我若生^羅何忍歸見家人方心神未定之際傳奴二名又
來曳出此身以復歸索兩臂彼相顧而喜相親舌之
^餘不可知其意似以始得相親兩相謂之私姓
首二奴左右扶去而^下一打擊其亦畏索顧^下路
傍則僮尸多在^下項背相望肝腦塗地不忍見也
坐置於後舍門內旁係先中柱此目送而密後四謂
汝死矣幸生在此故為幸之不死之前勿為動心幸

源點頭少間保寧柳清根定山李侯庇仁文錫煥三
人次弟傳來恍然相顧不相通語焉嫌於倭兵之
致疑也乘間密語曰君輩勿懼也死生定命少勿動
心宋之文丞相死於紫雲寺我東三學士死於慈雲寺此
今日之死何以異此幸而得生漢之種外宋之洪皓
我東金清陰姜睦隱自在少勿悔恨但君輩力
量地位不及前人是則可憂也諸人相顧無語知言
之確也終日傳生兩手如維金體刺痛一晝一夜如
不入且即昏倒不省而精神如乘胸中勃一氣湧如山
必是積忿在而此也被執數百餘人底冊歸居地姓各

彼皆隨錄

景

後數百倭兵各拔銳鈔擁立前後羅列馳出若斬市
梯未就並因洪徽其日即回四月功九日也日昏後倭兵
進又餓每名下各給一塊並飯食其柳清根矢約回寧聚
此飯不可食南敬天禮山人亦不食矣三人投而不食李
試亦初後各言不堪飢情先受其饑余大責之李試撫然
文錫煩進前曰不食彼飯生不知其義今滿也余曰義
十九年又却地事固不食剛果洪忠宣十七年囚金人未
固不食其飯科東金清陰七年拘囚滿獄又未固入食
我輩食彼飯而生不為害義我且夷齊不食周粟
聖人稱以節義各以所主而或生或死並行不悖也各以

上

所見定其食不食也。傳人來問不食之故。答曰。吾與
汝為儕。汝無食。我之禮。吾豈受汝之禮。吾豈受汝之食。而後
食哉。三人君子不受。遂來之食。以受汝儕人之食。予傳人以
此指目而餽視。並甚洪。邑同囚人向我老物。分其食。互相勸
曰。吾輩所求之飯。小無嫌。疑請下。若乃與柳南二人同食。
曰。邑人之優。雖無嫌。此亦不過一朝夕間事。乃買入而食。僅
保殘命。傷人。或非笑曰。吾輩中即金清陰事。有分明可證。則
諸公之不合於義。何如。答曰。吾輩中。吾與金清陰。自與金清
不同。猶外清陰。不過斥和。傷人。我輩中。自是等。乃我攻彼。同
者。其義。傳人又一等。有問。空忍食。其犬象之食。乎。其人折

豕

倭兵

服留徽二日

國月十一日

兵丁未傳諸洪州亞館也。領官坐於廳

上置一座於下使之對坐先問居地姓名因曰從寧靜
對諦視領官則一倭酋也余曰汝幾年未居我國言
語若是慢孰在貴國何官領官笑曰吾亦朝鮮人
而慶形至此慶之間實或無憾余曰領官姓名其誰
領官曰李起弘也余曰何李之曰國族也余曰他姓不思作
此行以居猶欲作此行乎李曰皇命不敢違也余曰君
命在茲不受且是命本非上意為人臣者忍助賊勢
而破敗我陣乎李曰國事豈以有老之士而常舉義而
反被倭人所執無乃悞事而不量時勢耶還為可惜

吾雖作今行豈無懷寃之心也吾聞先人名下士也特
為寬待而不刑無隱而實告日後更推之際言辭不
同必被倭人重刑余即清組筆書之曰大明遠民朝鮮
聖主忠清南道道臺浦柳華江村坡平尹紹鳳痛國家
之將亡憤倭奴之肆虐日夕抱寃之心將以討倭復讎為
一生家計而謂士者本無土地之望本人民之勢力則
豈可為老筆書也故今表三月上京將以一疏告君矣
此為倭兵所阻勢禁形勢無可奈何痛哭而歸只自
仰天呼痛千萬謂外前奈判閤序植出第死之計連
大將被殺退吾家田陣市中道人請見故出而接西

所居

賀以楚伯王沉軀之誅張討虜所棄之勇因問華義
 本告則閔台曰先斬五賊之頭又推五條之約云故愚若曰
 將軍之志則大矣強弱之勢不同何以深望閔曰成敗利
 鈍不計逆親恩若曰君子正其義不論其利將軍之志
 如此則甚矣吾意固曰今行欲與先生同車入城也謝曰兵
 死地親在身病不暇許閔曰事勢然矣不暇強請遂謝
 而去更留後約矣入汝州清又遣人請見恩感甚我閔月七
 日入城八日夜隔城九日初被執如斯而已別無他說而既
 赴義陣敵口不知外人指目安得免乎殺之無免生之
 無色惟在領官任意為之吾無所懷李曰事待以老

儒術德而終不直言何也余曰何以謂不直言李曰若不直言
台何以同謀此等大事乎既赴義陣死何無辜一兵而來與
大將相見又有謝策而無他說者終是欺詐之言也余曰色
里者之工以直為主有口有無口無足平生心法今以實對
而不信從他處問也人情大抵出於畏死余不從實而思則
身臨死地更無生路因有何畏憚而飾詐乎李曰以此報若
妾倘不怨悔否余曰自秦漢焚坑黨錮之禍至于我東
士禍何限而未有如今日之大者殆猶柴桑復何怨乎
可恨者閹宦植金商恩誅人之慘難苟免也可憐者
無辜羣城民數百人之同被其禍也起弘範畢使之而去

果我時索
進而自見我

即還就因謂柳清根法人口無諱實言男兒寧死不以
不義屈明日倭兵又執去靈兵所倭兵一人密語口無諱
而實告不然則被刑蓋彼兵之密語未知其意雖甚疑之
言則是也或為我老而憐之否隨我而立於傍倭商三人
坐於廳上解縛吐我於樹榻兩拍余曰去且病眼昏耳
聾清音不相通清將低筆以書倭人以筆修筆進之
不受口為手生不用汝國物貨且低筆不慢於手運我
國低筆筆末也果以我國低筆投之而彼見我氣息喘
促謂余曰老人氣力必致不食而也請進米飲余曰隔腔
火熱不食自能清飲冷水持一器而乘潤飲後一筆書

之好辭曰忠本嘉生不知兵事而聞義兵大將洪宗極舉
事慕其義感其誠將欲一見謝策之際義兵將雷德松
房家前村市中傳語請見德松義兵不敢生辭即出見德
向請問舉兵大義德松曰台心為先新去賊又索五條
約德松曰台心盡之志則大矣而事則難成德松曰台心
不計事之成否將欲伸大義思德松曰此則就不得將
軍之義而勇赴也因相別後入洪州使人請來德松
則弟生一觀軍勢德松曰今如七日入城一日
文瑞城門相見不過三次德松言防守之策而又皆不
聽德松言滿初心至母車堂將欲還來之後德松而初執

將至死境無益於國事矣未得死於老母之矣然何
恨留陣終一日故不調軍中會人三無軍師長前呼者
金南區中軍李世永教人外他諸人都不知耳吾則
上不希將帥之位下不覺奔徒之位只以無位而能死
既赴義陣又與大將教談論軍事汝輩謂我魁
首強名曰考謀將若死之日因遊於我國三烈士之魂
武生則性相於清隱先生之墓後何恨乎三侯甫等
主生之殺之更不多言彼人受覽後不復向而請精馬
一本為廳上東還刑杖我兵不思回不思息寫抄抄畢
放聲大哭曰魁首將卒無一技得乃以無為校被之險

杖殺之徒仍懷狀請斬身並家人頭並放無罪之人柳
藩根亦大拜力爭彼人止刑留二日洪郡尹始榮心
宣倫文案徽看審不示論文而去即午人也與柳友烟
姻也晚視曰這何物採更無他言故日即呈文於官請
放無罪之人以酬等或人為首也洪郡無題下可見
物於彼人也因此郡便密付家書以知生在聖日放出
百餘人乃是昨刑時重西人力言之故也同四月十六日倭兵
盡傳我兵十二人押上京部以余年其為魁每所等
跪上頭無冠個身無上表三穿草鞋露面徒步昂
披其其道臨觀者莫不畏怖而避之到龍山莊驛院
奉

酒店南敬天老母与世妻妾来哭相扶行者莫不垂淚倭
人男女門外踴視曰此老人希罕將耶某義則事理當
然而何以殺我商民三人乎余若曰此則事在元帥非我
人所當知也倭雖頭面去十七日霜溫陽色溫倭將車傷
義兵初久飯云故心甚喜言身退也及世倭也以一塊鹽
飯如彼人之食余懷而部之謂官馬曰吾輩知人不
食此飯告汝官刃因賣食翌日獲程將如老不能
進步請一匹馬示本官倭人禁止渠自卜馬一匹等
待乘馬至天安停車場彼人請乘車余揮手而致
不乘此車俾倭扶而乘之時刻間至咸教驛望從叔泰

五家而無通信之暇瞬息間至四井並及廣賓在後

倭而無暇語及日暮日已時至南門外下車入信使德

即倭人盜掘墓也其日即閏月十六日也十二人中有一人

武臣各間不相通語倭兵晝夜守直肅察動靜

不食以死自誓諸倭來問不食之故答曰汝等不問供

州時當義士死守伯夷國國聖人之粟不食已死前

聖後以常義物之憂何忍食汝夷狄之粟乎

倭人泣塞而退翌日取招才司合部集以慢辭待我

余曰何而慢辭待我彼曰爾為罪人故也余曰何罪人

伯夷不食周

伯夷不食周
邦聖金粟而
死

此章
在下章
移為世下

彼曰露國天下英雄之國我兵遠涉萬里不戰必勝其國
之弱安敢敵我且以無用兵先定敵國之平然萬戰萬敗百起
百滅余曰爾不問仁者無敵乎又不問壯士提甲甲利兵平而
情士仁義也提甲必為也仁者守之以備之心而勇者打如探敵而
以大義敵彼曰我兵較文武仇余曰我人盡論男女十歲以上
皆有討番之心其數不可量也彼曰兩國和好則我兵不起乎余曰
若有和好之心爾國之君與我皇上約山河之盟爾國政府與
我朝廷著金石之文通示兩國臣民均亦東西洋諸國無相侵
伐者守封建為行政勢也然則然日新唐人義兵不能畢竟
爾先敗之彼笑而不答余曰汝國純綸皆是忠孝天之賜

歸

一

進

心

邦

獨存我邦天理非人力可滅人之大道但在我人通兵力
盡滅我邦之邦為汝土理昭昭彼笑而不若彼曰幸勿
論潛下於國將知之乎余曰不知彼曰何為不知余曰若有
密諜是王師非義兵也義兵者自下起義也果有是事
而吾知之則使國將先盡密諜次盡傳令布告於一國
不使令者以逆命斬之何以獨坐孤城自速敗亡而彼口以然
矣謂國因汝人口彼若問此事汝若答以吾言

以事高立
於下也

金口
人初執

吾輩舉兵而犯上乎奔往而奔民財乎將為國而報
仇為民而除害且不欲奪汝國土地人民何所謂之罪人
若謂罪人何以謂義兵汝本害人不淺義字本有
義者四德之一而及其行義乎則正其義不謀其利
故前人有四德之義而為之者義也律律屈而更端
同口大將同宗植玄受必應知之詳告也余正色曰若
知同將之玄受其時隨出何必坐待而被執見此衆
困辱於汝輩乎汝不必司我也後令知之生肯捨也
彼曰囚囚中知之者衆人柳清根李斌文錫煥三人素
所親知此外皆不知也彼口中軍李世永安在余口不知

也彼口中軍家何事其人誰某之子余口不知彼口同事之
人坐不知不居誰家之子乎余口義我則因而事不因彼也彼口
然則何為若謀將余口者將洪州城中汝輩強名之說
身不為之也彼口汝輩是浦人豈不遠同道同鄉之人何不為
某也將余口我本京師士夫也流落湘鄉不迫十年與諸侯不
余杜門讀書且交德祐坐能事知同鄉人且若謀大將幕下
吾輩士人固不敢以我為幕任然欲除其任吾不肯行
彼若情厚吾使人探問可也彼口若探問而左汝南就
口義我亦余笑口死固吾願何難之有彼口正林某口相父故衣
走余四五服某物紙筆墨四件許入也彼人許之歸某故物入
愛國故身義也彼曰五時誰也余口汝不知五時誰也汝南就

卷之八 純德也 他如 有金田此 爲先生之子 爲人後 爲之勉也 彼口世
次非也 金田此 爲先生之子 爲人後 爲之勉也 彼口世
中後也 又次 乃知 族戚知 舊同所 送未 知謀 某也 翌日 相飲 厚寬
清也 宜也 莫
泣身先 泣身
泣身見 爲城
以善言 傳之
世世 矣而 不

名低出 於叔中 每次 而招 汝請 見父子 相而 彼牢 拒
不許 余曰 父子 天性 一日 團然 父子 之性 如何 外傳 口人
情子 似然 而法 意不 然在 何一 日相 守直 後兵 以片 紙
書勸 諸先生 姓名 示之 意面 不勝 爲喜 問口 何果
入耶 傳口 昨夕 矣乃 願謂 同因 汝人 口今 而汝 得死 所
矣終 是國 將此 朕故 與彼 相語 之際 爲此 甚矣 氏至 同
因某 士生 光矣 口汝 同招 之地 汝君 上皆 心勉 而爲 主將
也翌 日同 許之 據余 口崔 制憲 仍以 捉來 彼口 以某 義故
也余 口汝 等每 以我 爲國 將幕 下焉 本名 爲國 將麾下

身与崔台罕年舊交今則待之以先生而留生同志死
同傳之道也至於今日事既生榮壽我無死難死我
為崔台罕死我不祥也因請見囚于羣倭之府林有
差何余色曰君師父一體陳其左而死死焉見生升其
父而不許身其內而欲見師而不許倭使身君生此後等
不許在天下生有無之道也一首曰公使人也余曰公
人聖人三次思不能書又曰此等事余已學之可矣
三次取拍太義也一而錄一首曰日本自年來倭
韓國希為貴國天下最弱故也韓人不知日本人之喜有此
此輩我以為西國交涉之事余作率大此口有何保護

年而日
俄向戰
之時我
人極其
杜絕傳
不戰而
受砲死
難之
為保護
命

我人國母因人國君是保護而此布馬國條約里金
石昭如日星人所知之而自昨十月伊藤及改其約置統
道使我君上不得自斷今置為港理事使我伯方
守令不得措手羅遣各國公使不得有公論締結
五賊十即使我國人不得開界乃至嶺山移及他國財
渴而人種滅絕我都城民家盡作汝屋齊人公廟似作
汝等及所官制法令一如汝國法式若我人則其形
奴詎敢此毀我衣冠若汝法比果保護而然而
天地法象陽尊陰卑帝王家法尊卑據夷華
夷之分非此外而衣冠內而志行被毀猶為夷

俗況制髮乎上衣下裳方領圓袂衣服之制而
汝輩志者有一於此乎五性五偏是人之志行而汝
仍則以兵荒之便利為能事以貨物之新舊為良才
欺瞞愚民以累保護而益而彼人語塞於他無不
知東許妄言至以金厲解曰既同世理許彼人使
之去退金曰三次同答意安而辭得彼生梗別無
一語一語不招我也知監獄首尾四十五日累夕每兩經
傳中義理文字彼人不知音義故或虛作之辭詔為以欺
可材或制或吟詠詩句則亦不使開口私相接語也其
禁之蓋其國之法也此云其中永山略傳為人循良傳

蕭

詩成

在傍

我讀書作詩事

試

然而同之者曰作詩

奈何余曰既入死地彼見詩而思之

試贈之詩曰國將有事天降人

志士皆同死可笑將軍獨免身不死之前

生以汝更圖社主伸大義送仙新日夕勝

真又曰一房監裡教自當度死何時始出頭

生非智勇丈夫兮死秉素秋四方多士同

巨獨村三囚陰路踏素平地視安心以外

無看冠身無衣歷今古人古所稱黃霸微中

讀之如海上陽春小瓢報八面聖穴全體僅寄
鎖又非天何故每生出世一得吾知文陽祇永山受
光清片紙書乃曰公等忠臣我士少服服者書曰既
知忠臣義士則何為拉因永山曰國法無私不為也於斯
可見彙彙不同從我一般矣彼中一人拉我曰人才拉柳
清根曰名士不以若拉時言辭正直拉耳自陽州至系
部一不刑拉拉我者不但為我死而待之渠國之仇貴
學問士故如此云耳嗚呼島夷之趣人道者猶知若問之為
貴在之仇我國之拉腸易壯者義兵謂之匪徒而謂將佐者
率兵來伐世他時輩之稍秀者以為不量時勢為君士者
著

被

爲國大害攻之不服惟都下市井之人與甚去年冬賊心甚而
極怖之激見之相及仇女至以布巾間雪困難以紙筆書記而
無席土地曲肱而卧者不知幾日或一時一日之閒食不知幾日
終宵不寐促膝而坐亦不知幾日不梳髮不更衣四十餘日
而髮亂衣虱肥懷傷膚全體成癩不剪爪趾長如寸不
漱以銅皿水流不出面垢痕生塵埃如之詎罵拳踢無時
不~~動~~而更之泰然不動心者或以平日所得在於律傳中動
心忍性者不~~身~~之重賦甚弱仇仇害嘆少後浦抵隨即病
生而物月之間無一微恙或者神以默佑而然布粒自因
人無不愛刑而吾与勉爲獨免以得者吾輩之德不及聖

人萬分之一而謀之惡心不及其人拒魁而歸五月二十
二日傳旨招去意謂總督事竣而諸同義及至司合部傳
首封我口及見法並二即報告則老人之言果無大相
左特為致送下去後若有同宗相舉人更不同杜此事
也余曰此言不煩說就十番我兵更起不虞必知之就欲不
希我兵生肯金我傳箇笑而不答以平安而去作別世
亦有人心而然更入司合部欲別同為人而倭兵爭拒
又欲見勉而亦不得余曰遠望見其顏色而去倭人
怒目核視曰法律如此不可得也余此言曰有法就以此是我國
城內坐心海國之法律之帶人情坐旁以此強行不得出時私

次達道知不知來慰矣若口不與師友同其死生而先致不
世不安所謂脫石水拘生石水死乘轎直到鄭家鄭金龍家
族戚友多尋來四求衣冠帶夜留一日到社洞具饌家
京紳士友來同者甚衆厭世紛擾六月五日即還故鄉焉
乃長相先考墓一塋痛哭後歸坐懷舊強收散精畧記
顛末作覽者之附擇焉

永曆二十六年丙午六月七日云希堂病卒是年

汝州倭兵所信辭

蓋浦霽士尹某曰愚本書生不知兵事而司義兵
大將同定植集事舉事為我而感其誠將欲一
見之臨義將今四月初建旗舉兵過吾家門前即
寒川市也傳唱請見故我不敢生而拜之即出見帶同
族請同舉兵大我同將若以寧宗近日五條約失斬
帝國五賊也愚答曰今蓋之志以大矢而事以就成志
何國將曰成敗利鈍不敢違觀而鄙意以出死之計不
量之力敢舉此大事愚者而答曰汝使易孰不感將軍
之義而勇赴湯火也因即告別而去家因直入其宅留步
日發行此報後所以使人要乘愚見不第性一欠軍勢男
負薪策敗果於初六日入城內觀聲中分安地相授

吳侯甫輩之殺之生之粟不多言云

我勝於英浦軍常北地智而無統士友老以策而不他故心
甚不滿意請還歸且論以老母在堂不敢許外國曰情勢
然余而力力行以少道一宿而意傷也星夜侵晨城果陷敗
國將不告事機出城而行思以深夜月山川皆生面只
些三怪炮突源生而待死矣幸免凶敵受在陳舍竟為日
兵而執于今拘囚將至死城無益於國事多矣得眾於老
母大矣我死何恨留生我陣總一日故不諱陣中會者只與
軍師長金商惠中軍李公永叔語而已他諸人都是不
知此件事務也皆不悉而死與國台報以接面片安可曰不知
我旅也我然上不第將帥之位下不克平徒之位免以我部魁而
強名曰參謀大將不然是誤認矣為死之日因遊於我國三
學士之魂表生時生拘於金清陸先生之養夫後何恨乎

부 록

윤석봉 선생이 을사조약 후 을사조약을 반대하면서 지은 상소문을 소개한다. 먼저 원문만 소개하고 번역은 나중 기회로 미룬다.

疏
乙巳十二月

忠清右道藍浦郡儒生臣尹錫鳳等誠惶誠恐頓首
百拜上言于 我聖上御榻之下伏以臣等寒門微
族陞伏海濱拘儒現見不敢知國事時務且所處地
位與喬木世家當路諸宰有異矣不但如此不在其
位不謀其政已有魯聖之大訓身不出則言不出亦
有閨翁之正論安敢違拂聖賢之言輕自出位犯分

也然而朱子又不云乎大臣雖有可去之義當傾國
覆都之患則不可去雖羣布之賤當國家危急存亡
之秋則可以言事今日國事無乃傾國喪都耶危急
存亡耶為大臣者不可去為士民者可以言事故臣
等謹具哀痛奮激之言無一生之氣冒萬死之心齊
聲號呼於闕門之外伏乞殿下細察下情亟垂
採納焉自古遊臣之救何限而未有如今日齊純址
鎔根澤完用重頭以五賊也亡國之禍不一而未有
如今日兵不血刃而全國土地人民以三條一紙予
敵也臣等欲言此事腔血先起心膽俱裂是乃天理

之同情實非人欲之私憤也噫嘻痛矣彼五賊輩宜
具東爨而棄君如棄屣賣國如穢糞 聖上有何顧
惜而不亟正邦刑以辭一國臣民而尚忍列置朝廷
之上使之翱翔顯揚乎假使 聖上之力不能制之
則亟下哀痛之詔使八路萬姓人人得以誅之則今
日人心之奮怒如火益烈何難之有哉使五賊依舊
在十部之官又褒揚大臣趙秉世輔國閔泳燦二臣
則星忠逆未分 聖明試思之五賊之罪猶浮於宋
之秦檜檜之罪止國而已而民生則依舊也今之五
賊賣國而欲滅人種不但為 聖上之罪入賣國人

之罪人也不但爲國人之罪人亦天地祖宗之罪
人也何者四海腥羶之餘一線華脉獨寄我邦而乃
以渠輩之手滅之其罪惡窮天地亘古今豈有其復
哉國人之彞性所同者莫不欲食其肉而寢其皮也
以膚知之迥出尋常萬萬而不之加戮者何也必
是倭賊護逆而殿下不得自由也然則尤所痛憤
而貽笑於各國也倭酋之三條檄書罪惡之褻慢尤
甚於漢之冒頓也雖殺父代立之凶種猶知漢天子
爲中華義主今以倭酋自處古昔帝王之位敢稱朕
詔等字於堂上我小中華聖主之前辭極褻慢無

異於臣妾我奴隸我也

聖明忍受彼函書乎廷臣

無一人裂此紙不但受嘲於萬國皆非我朝之臣也

然而殿下特不允三條約一國臣民孰不仰誦

聖心之乾剛也彼所謂統監是何物而僭居先王

宮闕乎果如傳聞使莫重舊宮為犬羊之窟此何

處也彼所謂統統渠國人乎統我國人乎統我則

聖上所統是誰乎彼所謂監監渠國事乎監我國事

乎監我則聖上所監是何乎無統無監而獨坐

正殿一日二日之萬機寂無一事恭已南面之樂安

在哉各國公使罷歸者無甚輕重於我而其主意則

使我邦爲屬國而自行自止無所顧忌然而各國之
使不係於倭酋之令則豈肯舍此就彼乎只此一事
不足爲憂但倭人行賂啗利則利之一字今世界人
心決冷難洗之病脉固未可信也清使中華古族粗
識事體義使海外新國風俗不薄豈以多詐反復之
國所瞞哉外他諸國臣等未詳其淺深故不敢質言
耳彼所謂各港理事使我方伯守令不得措手水陸
之利并攬取將欲爲渠手中物國內土地物產任意
用計植其民而易我種之計也若至此境聖上無
一民無寸土無片物矣果誰與爲國乎渠事則了矣

我計則已矣 聖明何不先斬五賊之頭以絕外夷
內應之路乎 聖意不能行此而坐待 宗社之亡

則亟效北地王湛之故事不坐宋帝北將迫在目前
將奈何以匹夫之賤戰陣無勇則置之不孝之科而
不以人類數之況萬乘之尊不殉社稷而苟存則復
以何顏對臣民乎是以 大明烈皇為萬古一君而
獨尊於後世也為臣子而請君父殉節似是迫切無
倫之說若非愛君以道之心不敢出此言也 殿下
果能不辦能急則始自今廓揮乾斷盡復 祖宗威
憲舊章急下圖新之詔以徵八路勤王之師約此羣

臣百姓背城一戰則雖暗瞽跛躄之人且增百倍之
氣爭赴湯火之蹈况宗戚之家柱石之臣尊君死長
之徒智勇謀明之士鍊習解散之卒豪俠義氣之才
億萬愛戴之民莫不奮力震起矣如此則中興之切
不日而成矣 殿下何所憚而不為田單不過齊之
一宗人以七里之城能破萬乘之燕而回復全齊之
基 殿下土地之廣三千餘里人民之衆二千萬餘
古人以千里不以畏人以此倍蓰之勢何故而區區
乞憐於讐人耶 殿下即招各國公使正言辭之曰
慶亂舊章吾之罪也進用小人吾之昏也國勢萎靡

吾之過也生民困悴吾之責也臧害忠良吾之咎也
遺漏人才吾之暗也財用無節吾之濫也崇信左道
吾之惑也受侮外人吾之耻也逆節屢萌吾之辱也
凡此數事悔之於心而謝之於人則外國之使相顧
而告語曰大韓其庶幾乎我國臣民則鼓舞振作曰
殷高周宣漢光宋孝復見於今日矣心若倭賊齧吞
之心必也惛然而密語曰我計差矣不幾年必捲兵
而歸矣凡此非難之事即在聖心一轉之間治亂
之分興亡之幾實係人主一心之存不存如何耳可
不其懼哉臣等請以殿下臨御以來前後所目擊

者陳之臣等之老先師故叅判臣李恒光於丙寅之
役與疾奔問備陳戰守之策洋船敗歸而殿下卒
不能盡用其忠言嘉猷厥後丙子之通商也儒生臣
洪在龜等以其師監役臣金平默之命率徒叫閤
疏格不入而退又於辛巳毀服之日在龜之弟在鶴
依陳東高登故事直言極諫竟被不道之罪而有西
市之慘其時臣等先師監役臣金平默以投書嶺儒
李晚孫疏廳勒加罪名竄配絕島故持平臣柳重教
以臺職辭疏兼陳大義忤於時論縱不被重譴終
於堪岩而止又於乙未之變儒生臣柳麟錫釋衷被

甲投經提戈建復讎保形之旗舉義東岡為基源所
敗嗚呼痛哉當日之事雖他國之變苟有人心者莫
不毛骨竦然為本朝臣子者尚忍言哉若備陳事
狀則雖殿下乾健剛德眩瞶必塞腸肺如裂故不
敢以筆伏達而萬朝諸臣無一人常膽復讎者反以
諸路舉義者謂之匪類而共討是可曰殿下建臣
也前叅判臣崔益鉉則以忠貫日月之心義秉春秋
之節前後陳疏不止一再而謹褒無常一不見施
殿下豈不察臣之師友為國忠貞為其左右煽動
內外脅持不能自斷以則臣等非不知聖意所

在及其布令於國中皆是傳音也以此歸咎於
聖躬而呼寃則聖心豈不幡悟之易耶以故臣等
不拘格式累足上來齊聲哀號仰望聖心之感動
而窮鄉賤品識見鹵莽言不知裁頗多觸犯伏願
聖明天地之量河海之德包荒蕝疾恕其罪而採
其言先斬五賊之頭懸之通街還索三條之約布之
環域則宗社復安人民再蘓嗚呼將死之病或有
復生之藥既傾之屋亦有撐支之水垂亡之國又有
中興之運故臣等不勝哀痛迫切之情呼天呼地謹
昧死以聞

尾附

臣等謹按古史獄中有譜尚書者漢之黃霸是也舟
中有譜大學者宋之陸秀夫是也獄中舟中決非讀
書之所死期在即讀之何益然而古人心死生一
致以聖人所以斃而後已者此也今殿下雖處危
難之地比於獄中舟中則可謂安平之地也且帝王
之位與匹夫大異何者匹夫之責一身一家也王者
之任內而朝廷外而州縣百官萬民之命皆係於人
主之一心而心若一差則百度廢矣百度廢則一國
止而不止之術在於治心也治心之法在於讀書也

聖賢經傳皆是治心之書似不可揀別而以時急切
要者言之莫如朱書行宮便殿第二劄垂拱奏劄等
篇以我東書言之宋書中勉聖學攘夷狄封事等篇
丙枕乙夜之時招致東宮暨王子左右列坐使之
敬聽則其效不但為殿下之心與身身與家正矣
國將治而天下平卓然為舉世之義主矣如此則西
鬼邪說安敢售於邦內島夷利兵不得措於手下矣
伏願殿下勿以臣等之言為迂濶陳腐而試之於
身驗之於心則石燭臣等之言不自誣也誠惶誠恐
頓手頓足百拜

再疏

伏以疏首儒生臣某京華世族流寓湖西聚徒講學
門路之正學術之精冠冕士類憂國愛君之心扶道
斥邪之義卓越諸儒若無意於當世而為陋巷自修
底好人矣不幸而當今日 國家大變忠奮所激按
挂不得白首老境力疾登程率徒叫 閤忠言嘉謀

非諸疏可比宜即蒙 批而必施疏中所奏矣不意
倭兵所阻不得 上澈反被所執幽囚於彼所謂同
令府古今天下寧有是法乎夷狄一也宋之金虜以
千金購胡銓封事而極稱之今以倭賊不知購而反

敗之彼之所為真夷狄之見而金人之罪人也然而
究厥所為五賊在內惡其渠罪之益著密嗾倭賊使
之然也非但某也就因各邑諸儒并受此辱痛矣憤
矣此何事也假使疏儒有罪則罰之有切則賞之皆
在我 聖心鑑衡豈以我臣子任彼讎賊之手而受
之無限苦楚耶 聖上孔仁之心必應盡然傷之矣
臣等忝在疏下死生榮辱義無獨殊故繼以封章共
討內賊之罪齊攘外夷之計並鳴吾儒之冤伏乞
聖明細察焉今所謂齊純以下五賊宋之秦檜之後
身招金亡國我朝鳴吉之罪人和清存國斬斫萬段

滅盡九族罪難盡贖彼所謂倭賊漢之冒頓之餘孽

殺父代立

渠國秀吉之遺勝

人欲滅種

食盡其肉寢處其皮不

足雪憤不但臣等之心如此舉國臣民不失彘性者

莫不皆然則殿下廷臣之在左右而媚悅五賊者

亦獨何心哉聖上獨坐深宮內言不出外情不達

上下隔絕寂寥若無事時聖明豈以此時為

安而延耶在野臣民雖欲舉義致討如趙文烈故事

不但力量不及懲羹吹簫於乙丙之事人心慄慄不

起故百甬思量萬不得已萬朝諸臣八路羣儒計出

下策以筆舌代鉞鉞之誅伏願聖明不以此輕視

也夫子若以三千之徒提戈誅當時僭亂夷狄則夫子沒後僭賊之徒無所忌憚接踵而起人不敢論其罪惡而春秋一經嚴防萬世昭示扶抑尊攘大權故至今幾千年猶知夷狄之可醜而中華之為尊也然則夫子七尺之軀輕於一部之經可知也然則今日我邦縉紳章甫或伏節死義或抗章扶國安知不為嚴於鈇鉞而伸大義於天下後世也耶五賊若知此義自首請罪只滅其身可也不然而欲贖其罪亦倣狄梁公屈身衛唐之術或可而渠輩知見已化於島夷之氣魄久矣何敢然何敢望討逆破約之論已達

於前跪不復疊床伏乞 聖明嚴詔於倭使放還疏
儒付之 本國司敗罪之 赦之由我 上命則雖
滅死萬、無恨矣此非臣等之言實一國之言又非
臣等之心亦天地 祖宗之心 聖明何不深察而
忍受彼辱乎

代湖西倡義大將疏

丙午閏四月

湖西倡義大將前叅判臣閔宗植等謹具哀痛之辭
洙血飲泣百拜上言于 主上殿下御榻之前嗚呼
痛哉今日國事之凶極尚忍言哉四千年道脉三千
里疆土億兆民大命五百年 宗社一朝為倭賊之

勒約所亡其時五賊輩之罪惡自開闢以來通華夷
未有如此極逆大慙也舉一國臣民者無論貴賤老
少男女莫不呼天叫地椎胸撲拳昏欲碎首即死於
殿陛之下而賊兵圍匝關外雖樊將軍排闥之
勇莫可奈何又欲治疏仰顙細稟憤鬱之情而疏格
不入其亦無術且將刺殺賊輩以報國讐而此則荆
聶之類決非人臣假得王章而誅之正法也臣等
百甬思量萬不得已使在朝之臣約以王孫賈故事
在野之臣舉以趙文烈大義而朝臣則竄無市人之
四百野臣則僅得義士之七百入守藍浦孤城將欲

啓達 九重暴白忠赤傳檄八方激義賈勇勢滿氣
飽無復建復讎保形之旗驅仁于義櫓之兵先斬五
賊之頭盡滅讎夷之族此臣等之所以報答 聖恩
之萬一也故一軍誓心盟血方在卧薪嘗膽之際公
州么麼一正尉亭兵丁十餘名補以 王師來言解
散敢曰逆名縛置問情儒生一人一齊放砲十餘丸
則儒生絕縛急走幸而免死雖緣其人之驍勇然而
率兵正尉之設心萬一可痛也臣等不為對砲而不
勝驚訝相顧而密語曰 聖上豈有此舉必是五賊
輩相連讎夷威脅 聖心勤名逆黨至於此境也伏

願聖上細垂察焉臣生長喬木世家自學語之初
習聞家庭忠君事長之道臣亦粗辨魚魯每讀經史
至古人為君扶國之處未嘗不聳動心神而尤所欽
歎者蜀漢時武侯出師表也其中句語之大義激感
處則漢賊不兩立王業不便安又其慷慨下淚處則
鞠躬盡瘁死而後已又其中心露出處則成敗利鈍
非臣逆視只此三句臣所平生服膺者而偶合於今
日也臣雖無狀豈以逆心假丈夫義字而表出欺君也
非但臣心如此一軍義士莫不皆然又不但一軍義
士如此八路萬姓舉皆如此噫彼五賊輩安敢以一

已之私說欺瞞乎萬人之耳目乎古人曰將在外君
命有所不受此言則真是君命而不受也然而古今
人不以爲非今日則雖曰 詔勅必非 聖上本意
也臣等逆觀其必然而何可奉 旨耶此後雖下百
詔勅千使舍臣等不敢奉 詔矣何也臣等一散
國隨而止矣國亡則 聖上誰與爲國乎 聖上非
不信臣等之言而羣奸矯制加之以逆名率軍來伐
則 特詔軍部不使我兵一人充備軍伍使五賊爲
先鋒倭酋二三巨魁爲後軍盡率國中倭兵不日下
送焉臣之本意滅倭誅賊而出則豈與我兵交戰哉

臣雖無才約與尊君死長之士血冤骨讎之兵拚死相戰以決勝負是所一軍之願也臣等萬一蹉跌盡為賊鈞頭之魂少不愧於睢陽城中之人復何恨乎臣等片心赤心斷無他天日照臨鬼神昭布噫彼時輩與倭俱化之類目之以大賊名之以逆黨冤乎痛哉臣等請以忠逆之分陳之於疏辭之中為國家宗社而復讐雪耻者逆乎貶君賣國而忘讐愛仇者忠乎冠儒服儒而道先王法言者逆乎毀形毀服而學南蠻鵠舌者忠乎守國典良規而不廢舊章者逆乎慕夷國淫巧而倡設新法者忠乎自聖

明臨御以來較其利害審其強弱則不待人言而自辨矣且以舉義言之四方寂無一事而與其坐待垂止使吾人類盡化數曷若百官萬民爭死力戰以扶國脉也臣家自本朝立國以來結大婚者五世也分義興草莽之臣自別矣臣先祖臣老峯驪陽

丹岩

為國忠貞日月爭光山岳并高

聖明

審知臣家之事臣雖不肖豈背父祖相傳遺訓敢忘君父罔極厚恩而輕舉不義之事貽笑萬邦害被生民也所恨者朱子所謂人心不如我心做時不如說時所恃者昭烈所謂彼以暴我以仁彼以威我以義

臣之愚見以為文明之國必有中興之運殷之高宗
周之宣王漢之光武宋之孝宗明之三皇是耳聖
明何不以此數君而自處乎伏願聖明不以畏難
自沮堅定聖志雖萬夫撓之不動毫髮夷狄之種
性本悍毒輕生樂死所識者下達也千方百計貨色
而已吾人之類性本仁善好德取義所識者上達也
千謨萬訓忠孝而已其貴賤尊卑之分昭然可判矣
是以伏羲作大易以扶抑為宗旨孔子作春秋以尊
攘為大義臣等謹守大易春秋之義而敢舉此事不
但為復讐討賊也既為國事而舉則官錢還穀不得

不取用如有不足則又取富民錢穀以用軍需而不
識事體而好談是非者與夫公州卒兵將官某以竊
取民間謂之火賊擅用官庫歸之逆臣是豈常情也
哉雖千人喙鳴萬夫指目臣不愧於心也朱子曰賊
當捉當誅國邊人也賊可捉可誅賊邊人也又況不
可捉不可誅之論奚啻賊邊甚於倭賊伏願聖明
審其廷臣當可二論則主賊之分不難辨矣大臣趙
秉世輔國閔泳煥兩忠正儒臣文忠公宋秉璿叅判
臣洪萬植諸人之殺身成仁是何故也無舉義復讎
力量則以身殉國亦一種道理也聖上褒揚大節

則臣之此舉義無異同而正尉所傳稱以王師而
聲討者何也聖明不有是教則分明是虛傳君
命也聖上不察臣之情狀而實有是教則何厚於
殉節諸臣而薄於舉義衆人耶論其切則殉節潔其
身而扶植綱常也舉義扶吾道而保宗社也義雖
同而切之大小有間也若使臣等歸之逆名則以上
殉國數三諸臣亦逆名也死生榮辱義無獨殊而如
是相左何也以臣等所以日夜飲泣而不自解也近
日人情安於姑息惟目前是圖而不識義理不知
宗社之亡君父之辱而榮身肥家諧世取寵之心潛

滋暗長不敢出頭舉身外他草莽賤品遐土微族何
足責備至若宗戚巨室柱石大家州郡牧伯無一人
赴義者同被國恩而勞逸不相侔者何也矣但諸臣
臣之閔家泳煥一人外畏首畏尾袖手傍觀聖明
大奮剛德嚴勅內朝外方箇一竿來重繩背義之罪
押送臣陣攢手仰望如此則聲勢相應軍容大振然
則部中五賊不誅自斃國內倭奴不擊自逃宗社
復安生靈依舊笑臣等不勝哀痛踴泣不拘體格謹
昧死以聞

■ **편저자**

황의천(黃義千)

- 196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출생
-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 교육대학원 졸업
- 현 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주요논문 :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보령 지역의 석탑과 부도에 대하여
백강 · 주류성 위치의 재검토
보령 황재현 백낙관의 위정척사운동
사가 유희근 선생과 사가집 외 다수

병오홍주의명과 홍경일기

- 인쇄일 : 2004년 12월 일
 - 발행일 : 2004년 12월 일
 - 편저자 : 황 의 천
 - 인쇄처 : 도서출판 종합인쇄
등록번호 제22호 Tel. 935-3898
 - 발행처 : **대천문화원** (Tel. 934-3061)
 - 주 소 : 충남 보령시 동대동 983-16
-

(비매품)

丙午洪州義兵斗
洪京日記

大川文化院